

# 고시기획

www.gosiplan.com

## NEWS

9-10월 종합반 얼리버드 할인 이벤트

**박문각은 무·조·건 20만원!** **초대박 할인** 선착순 200명!

9월 박문각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문각이가 합격을 습니다

**9월 6일(월) 대개강 7급/9급/소방/군무원 종합반 20만원**

## 9월, 시험합격 기본 토대 만들어야

### 개강 前 기본서 구성·올해 시험 정보·상담 등 진행

[ 2022년 9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체크 리스트 ]

- 강의 개강**
  - 자신에게 맞는 강의 선택해야
  - 과목별 기본서 목차 등 구성 훑어보기
- 2021년 시험**
  - 올해 9급 공무원 시험 출제경향 확인
  - 각 직렬별 및 지역별 합격선 등 참고
- 학원 설명회**
  - 과목별 학습방법 및 공무원 이슈 확인
  - 전문가와의 상담 통해 학습계획 세워야

2022년 9급 공무원 시험을 위한 학원 강의가 9월6일 본격적으로 그 막을 올린다.

수험생들은 학원 강의를 통해 과목별 이론정리에 돌입함과 동시에 2021년 9급 공무원 시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 기본서 '미리 훑어보기'

2022년 9급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우선 탄탄한 이론정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공무원 시험 과목은 이론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론정리가 부실하다면 훗날 이어지는 문제풀이와 모의고사에서 실력을 끌어올리기 어렵다.

수험 관계자는 "준비한 과목별 기본서는 개강 전 목차를 훑어보는 것도 좋다"며 "기본서가 어떠한 내용과 차례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개강 전까지는 기본서 준비와

목차 등을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본격적인 이론 학습은 강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올해 지방직 9급 공무원 합격생은 "기본서 내용이 방대하지만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과 어떻게 출제되는지 등을 알 수 있다면 학습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과목별 강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때 수험생들은 자신에게 알맞은 과목별 강의를 선택해야 한다.

강의 선택은 샘플 강의를 들어보는 방법, 주변인들에게 추천을 받는 방법 등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

수험 관계자는 "강의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샘플 강의를 들어보고 수업 스타일, 진행 방식 등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과정이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향후 실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2021년 시험 '정리하기'

2022년 9급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올해 치러진 9급 공무원 필기시험 출제경향 및 합격선 등을 꼼꼼히 정리해야 한다.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및 교육청 9급 공무원 필기시험 난이도가 어떠한지와 과목별 출제경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각 시험의 직렬별 및 지역별 합격선 현황을 파악한 후 향후 시험 준비에 참고하는 것이 좋다.

수험 관계자는 "시험 합격선은 매년 난이도 등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사항이다"며 "자신이 응시하는 직렬과 응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경쟁률, 응시율 및 합격선 현황 등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원 설명회 적극 활용

이처럼 과목별 기본이론 학습과 올해 시험 출제경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원에서 실시하는 설명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박문각남부고시학원은 설명회를 통해 과목별 합격 학습법, 공무원 핫이슈, 슬럼프 극복 등을 수험생들에게 안내한다.

학원 관계자는 "2021년 기출문제를 통해 알아보는 과목별 학습법, 공무원 시험 제도 관련 이슈 및 시험에 필요한 최신 판례 등을 확인 할 수 있다"며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설명회는 박문각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어 수험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문각 공무원**

2021 상반기 결산세일

**7급 전과목 50% 초대박 할인**

8월 30일까지 할인

**박문각 ▶ NETclass**

**LIVE 스트리밍 강의 & 캠퍼스 학습관**

**오픈기념무료**

바로 듣고 바로 질문하고 바로 해결한다!

GMO 박문각

2022 공무원 시험 대비

**박문각 교수T패스** 오른 기간 장기 할인 혜택

어려움이 원하던 바로 그 T패스가 더 강력하게 돌아왔습니다.

부족한 과목만 보충하고 싶은데 유패스는 부담돼요	변경된 시험제도 및 향후 다변 정책도 염려하고 싶어요	박문각에서 학생 과수님의 강의를 듣고 싶어요
----------------------------	-------------------------------	--------------------------

**교수T패스(365일)** (금리관망) **원강T패스(365일)** (금+요프리관망)

선택 과수님 온라인강의 수강 365일 자유 수강 3배수 수강 + 한정 강의

**420,000원** 원가 **760,000원** 원가

GMO 박문각공무원

수험서/자격증 전문 도서 쇼핑몰

# 박문각 북스파

9·7급 공무원  
경찰 공무원  
임용 고시  
공인 중개사  
각종 자격증

검색창에 **북스파** 로 검색해 보세요~!

- 명칭 : (주)에듀스파박문각 고시기획신문사
- 등록연월일 : 2014년11월01일
- 제호 : 고시기획
- 간별 : 주간(매주 목요일)
- 인쇄인 : 정희택
- 발행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71
- 대표번호 : 02-824-8385

# 2021년 군무원 필기시험 합격선 현황은?

## 육군 군무원 합격선 발표 8월27일로 연기돼

【 2021년 각 군별 군무원 행정 7·9급 필기시험 합격선 】		
구분	행정 7급	행정 9급
국방부	82점	84점
공군	71점	82.66점
해군	60점	81.33점
해병대	70점	81.33점
육군	8월27일 공고 예정	

2021년 군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현황이 발표됐다.

이번 필기시험 합격선 및 합격자 명단은 각 군별로 공고됐으므로 응시생들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 \*국방부

국방부 주관 일반 군무원 직렬별 필기시험 합격선은 다음과 같다. ▲행정 7급 82점 ▲행정 9급 84점 ▲군사정보 9급 73.33점 ▲수사 9급 86.67점 ▲토목 9급 65.33점 ▲건축 7급 64점 ▲전기 9급 73점 ▲전산 9급 76점 등을 각각 기록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공개경쟁채용 867명 ▲경력경쟁채용 167명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9월24일부터 30일까지 면접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면접시험 장소 및 개인별 세부 응시일정은 9월10일 국방부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 \*공군

2021년 공군 주관 일반 군무원 필기시험 합격선도 발표됐다.

공개경쟁채용 직렬별 필기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행정 7급 71점 ▲군사정보 7급 73점 ▲전자 7급 51점 ▲행정 9급 82.66점 ▲통신 9급 49.66점 ▲군수 9급 78.66점 ▲9급 군사정보 73.33점 ▲수사 9급 82.66점 ▲시설 9급 57점 ▲전자 9급 52점 ▲전산 9급 74.66점 ▲일반기계 9급 74.66점 등이다.

공군 군무원 면접시험은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9월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다.

채용직급별 면접시험 장소 및 세부 일정은 9월15일에 공고 될 예정이다.

올해 공군 군무원 최종 합격자 명단은 10월7일에 발표 될 계획이다.

### \*해군

해군 주관 일반 군무원 직렬별 필기시험 합격선은 다음과 같다.

▲행정 7급 60점 ▲행정 9급 81.33점 ▲사서 9급 72점 ▲7급 군수 63점 ▲9급 군수 78.66점 ▲9급 군사정보 72점 ▲건축 7급 61점 ▲건축 9급 69점 ▲시설 9급 61점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해병대 일반 군무원 필기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행정 7급 70점 ▲행정 9급 81.33점 ▲군수 7급 60점 ▲군수 9급 72점 ▲군사정보 9급 72점 ▲건축 7급 61점 ▲건축 9급 66.33점 등이다.

해군/해병대 군무원 채용 향후 일정은 ▲면접시험 9월27~10월7일 ▲최종 합격자 발표 10월14일로 예정돼 있다.

### \*육군 합격자 8월27일 공고 예정

한편 육군 군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당초보다 늦은 8월27일에 발표 될 예정이다.

육군은 지난 18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무원 지원자 증가로 인해 답안지 채점 기간이 늘어나게 돼 부득이 합격자 발표일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 99% 적중률 ‘박문각 합격예측 모의고사’ 유명 학습관 제휴, 공급



토즈, 르하임, 공부인, 디플레이스, 비허밍, 스테디고, 아카데미라운지, 어라운드, 영광독서실, 위넨, 지니24, 초심, 커피랑도서관, 포커스, 포텐, 플랜에이, 다올, 공간샘, 하우스터디, 화이트펜슬, 잇올 스파르타, 꿈꾸는공간, 이플림, 빅스, 타임유, 시작, 프레쉬스터디카페 등

## 전국 2,000여개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 AI데이터 기반

### 분석 문제 단계별 실시

수험교육 전문기업 박문각은 지난 3월부터 공무원 합격예측의 99% 정확도를 자랑하는 모의고사 서비스를 박문각 남부, 종로, 강남 공무원 직영 학원과 학습관에 이은 제휴 업체로 확대 실시한다고 전했다.

박문각 합격예측 모의고사는 출제 위원급 75명의 박문각 공무원 교수진이 엄선한 문제를 빅데이터 기반의 AI시스템이 분석하여 최신 유형의 적중 예상 문항을 추출한 후 6회 이상의 합격전략 연구소 검수를 거쳐 최종 출제된다.

본 모의고사는 ▲영어 일일 모의고사 ▲공통 3과목 주간 모의고사 ▲합격예측 전국 월간 모의고사를 3단계 구성으로 실시한다.

이 단계별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실전 감각 및 적응력이 극대화되기에 빠른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공무원 합격에 이르는 실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

### 다각적 학습 지원 기능 제공

이 외에도, 합격관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박문각합격관리)을 통하여 여러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답안입력 ▲성적관리 ▲동영상 해설강의 ▲1:1 상담 등 다양한 피드백 시

스택이 제공되며, 박문각이 자랑하는 인공지능 학습지원 솔루션 AI확인학습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학습 지원 기능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 99% 합격예측 적중률

### 체계적 합격 전략 가능

특히, 박문각 합격예측 모의고사는 수강생이 선택한 직렬 별 최근 3개년 경쟁률 및 합격 커트라인을 반영하여 99%에 이르는 합격예측 정확도로 체계적인 합격 전략을 세울 수 있고 과목 및 영역별 전국 단위 응시생들과 성적을 비교하여 수험생의 명확한 위치 진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문각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끊임없는 요청에 따라 박문각 직영 학원 및 학습관에 한해 운영되던 합격예측 모의고사를 ‘토즈, 르하임, 하우스터디, 아카데미라운지, 다올 프리미엄독서실, 영광독서실’ 등 제휴업체 지점으로 확대해 시행하게 되었다”라며 “확대 시행되는 합격예측 모의고사를 통해 빠른 성적 향상과 실전 감각 체득을 통해 소망하는 공무원 합격을 달성하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박문각 합격관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박문각합격관리), 제휴 학습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영신 기본 영어**  
2022 공무원 시험대비

Part 1 문법 출제유형 급소정리  
Part 2 해석기법과 문장연습  
Part 3 유형별 기본 독해

합격 기준 박문각 공무원

# 2022 이영신 기본영어

**합격, 박문각 공무원 기본서** 이영신 편저 15,000원

단기합격을 위한 **‘영어의 바이블’**

**Part 1** 문법 출제유형 급소정리

**Part 2** 해석기법과 문장연습

**Part 3** 유형별 기본 독해

노량진학원 02)815-7819, 3280-9990 | 온라인 02)3489-9500

# 박문각 공무원

# 합격생 3명중 2명은 1년 내 합격

9월 개강 모집중

## 스파르타 실강반

합격생이 되는 빠른 방법은 박문각 스파르타 실강반입니다.

# 역대 최저가!!

선접수 이벤트 등록시 지정좌석 + 올패스 제공

- 학원 강의 + 온라인 강의 + 개인지정 학습실 (개인지정좌석) + 성적관리 (일일 / 주간 / 월간 모의고사) + 부모님 안심 서비스 (자녀 등원시간 알림 문자) + 철저한 생활관리 (출결 관리 자습 관리)

TALK 카카오톡 에서 박문각 스파르타 채널을 검색해보세요!

## 경찰공무원 일반 2차 향후 채용 일정은?

구분	일정	구분	일정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8월27일	면접시험	11월22~12월14일
신체·체력·적성검사	9월23~10월29일	최종 합격자 발표	12월17일
응시자격 등 심사	11월8~12일		

2021년 경찰공무원 일반 2차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이 지난 21일에 치러졌다.

필기시험을 마무리한 일반 2차 채용은 8월27일 합격자 명단을 공고할 예정이다. 향후 채용 일정을

살펴보면 ▲신체·체력·적성검사 9월23~10월29일 ▲응시자격 등 심사 11월8~12일 ▲면접시험 11월22~12월14일 ▲최종 합격자 발표 12월17일이다.

참고로 이번 일반 2차 선발예정 인원은 총 2천248명으로 ▲남자 1천546명 ▲여자 582명 ▲101경비단(남자) 120명을 각각 선발한다.

[2021년 지방직 9급 합격선 비교] ④ 전라북도

## 순창군 필기 합격선 대폭 하락

지역	2020년	2021년	지역	2020년	2021년
전라북도	409.56점	385.87점	정읍시	366.47점	386.48점
전주시	391.40점	390.74점	진안군	376.40점	387.40점
군산시	395.04점	371.63점	무주군	364.14점	358.44점
익산시	388.60점	382.40점 (양성 382.37점)	장수군	366.82점	370.40점
남원시	365.05점	368.59점	임실군	377.07점	377.98점
김제시	384.04점	376.04점	순창군	393.48점	359점
완주군	384.71점	376.78점 (양성 374.87)점	고창군	364.94점	359.35점
			부안군	349.20점	377.62점 (양성 374.79)점

2021년 전라북도 지방직 9급 일반행정 필기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합격선이 하락한 지역은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이다.

전라북도는 409.56점에서 385.87점으로 하락했고 전주시 합격선은 지난해 391.40점에서 올해 390.74점으로 낮아졌다.

군산시 필기시험 합격선은 395.04점에서 371.63점으로 대폭 하락해 눈길을 끌었다.

순창군도 2020년 시험에서는

393.48점의 합격선을 기록했으나 2021년 시험에서는 359점으로 합격선이 낮아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년 대비 합격선이 상승세를 기록한 지역은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이다.

정읍시는 지난해 366.47점에서 올해 시험에서는 386.48점으로 높아졌다.

부안군은 2020년 시험에서 349.20점을 기록했으나 2021년 시험에서는 377.62점으로 합격선이 대폭 상승했다.

## 전라남도 경력직 채용 원서접수 8월27일까지

구분	일정	구분	일정
필기시험 장소 공고	9월17일	면접시험	11월8~9일
필기시험	10월2일	최종 합격자 발표	11월26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10월29일		

2021년 제6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원서접수가 8월27일까지 실시된다.

전라남도는 이번 채용을 통해 ▲8급 간호 18명 ▲9급 일반토목 86명 ▲9급 건축 20명 ▲9급 운전

(보훈청 추천) 14명 등 총 138명을 각각 선발 할 예정이다.

향후 제6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경력직 채용 일정은 다음과 같다. ▲필기시험 장소 공고 9월17일 ▲필기시험 10월2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10월29일 ▲면접시험 11월8~9일 ▲최종 합격자 발표 11월26일이다.

## 공인중개사 원서접수 전년대비 대폭 증가

구분	2020년	2021년	증감
계	34만3천11명	40만8천492명	6만5천481명↑
1차 시험	21만3천936명	25만3천542명	3만9천606명↑
2차 시험	12만9천75명	15만4천950명	2만5천875명↑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원서접수 현황이 발표됐다.

이번에 발표된 원서접수 현황은 8월17일 기준으로 인원은 환블에 따라 변동가능하다.

1·2차 시험 동시 접수자는 총 40만8천492명으로 전년대비 6만5천481명 증가했다.

1차 시험 접수인원은 25만3천

542명으로 전년대비 3만9천606명 늘었다.

2차 시험 접수인원은 15만4천950명으로 전년대비 2만5천87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접수한 인원은 27만6천982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1차 시험은 ▲10대 619명 ▲20대

2만9천196명 ▲30대 7만2천1명 ▲40대 8만588명 ▲50대 5만6천558명 ▲60대 1만3천820명 ▲70대 이상 760명이다.

2차 시험 연령대별 접수현황은 ▲10대 317명 ▲20대 1만8천116명 ▲30대 4만1천655명 ▲40대 4만7천793명 ▲50대 3만6천750명 ▲60대 1만374명 ▲70대 이상 54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성별 접수현황은 ▲1차 시험 △남성 13만320명(51.4%) △여성 12만3천222명(48.6%) ▲2차 시험 △남성 8만3천921명(54.2%) △여성 7만1천29명(45.8%)로 나타났다.

## 경기도 교육청 점수분포 현황은?

경기도 교육청이 2021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점수분포 현황을 공개했다.

9급 교육행정 남부 필기시험 점수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85이상~90미만 4명 ▲80이상~85미만 159명 ▲75이상~80미만 551명 ▲70이상~75미만 575명 ▲65이상~70미만 460명 ▲60이상~65미만 289명 ▲60미만 302

명 ▲과락 1천48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기도 교육청 9급 교육행정 북부 필기시험 점수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 ▲85이상~90미만 2명 ▲80이상~85미만 51명 ▲75이상~80미만 201명 ▲70이상~75미만 159명 ▲65이상~70미만 151명 ▲60이상~65미만 88명 ▲60미만 86명 ▲과락 499명이었다.

# 조충환·양건 테마 시리즈



## 2022 테마 형법·형사소송법 전면개정판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바로 그 객관식 문제집!

각종 기출문제 ⊕ 예상문제 총정리

“고득점을 위한 완벽한 객관식 문제집!”



양건

조충환

# 박문각 공무원

## 박문각 공무원 스파르타

# 기숙연계반

노량진 실강+지정숙소(1인1실)+빡센 관리

9월반 모집중! 상담 후 등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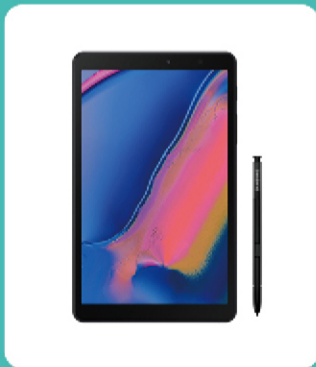
### 2021년 9급 기숙연계반 합격생

빈틈없는 관리로 6개월 만에 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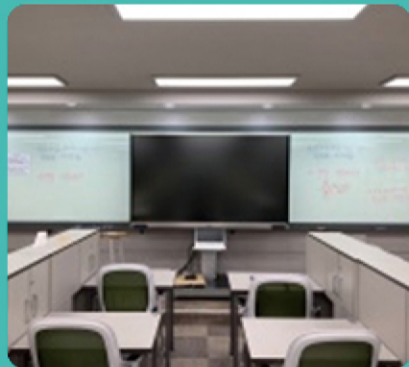


- 김O영** 2021 국가직 경찰행정 필기합격 / 2021 지방직 교육행정직 필기 합격 **2관왕**
- 전O우** 2021 지방직 사회복지 최종합격
- 이O정** 2021 지방직 녹지직 최종합격
- 한O원** 2021 지방직 사회복지 최종합격

**외  
합격자  
다수배출!**



갤럭시탭 **전원제공**



전용 자습실



1인 1실



지정식당

**TALK 카카오톡** 에서 **박문각 스파르타** 채널을 검색해보세요!

# 『2020-2021년 사회복지직 9급 시험』 ⑧ 경상북도 전년대비 선발인원 감소 · 평균 경쟁률 소폭 하락

2021년 지방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선 발표가 마무리 됐다. 『고시기획』은 2020-2021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채용 현황을 총 정리해본다

【 2020-2021년 경상북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채용 현황 】						
구분	선발예정인원		경쟁률		응시율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포항시	30명	17명	7.1대 1	10.5대 1	78.9%	78.65%
경주시	12명	8명	11.17대 1	9.6대 1	77.6%	76.62%
김천시	-	8명	-	6.9대 1	-	87.27%
안동시	12명	6명	10대 1	11.3대 1	73.3%	83.82%
구미시	14명	6명	12.29대 1	18대 1	76.7%	77.78%
영주시	2명	2명	11대 1	18.5대 1	68.2%	83.78%
영천시	13명	4명	8.54대 1	10대 1	79.3%	72.5%
상주시	6명	7명	10.83대 1	8대 1	78.5%	83.93%
문경시	9명	14명	4.67대 1	7.3대 1	64.3%	82.35%
경산시	1명	17명	36대 1	9.6대 1	63.9%	84.15%
군위군	3명	6명	9.33대 1	6.2대 1	78.6%	81.08%
의성군	8명	4명	10.5대 1	11대 1	79.8%	79.55%
청송군	3명	4명	8.33대 1	8대 1	76%	84.38%
영양군	3명	-	5.67대 1	-	76.5%	-
영덕군	5명	-	9.2대 1	-	84.8%	-
청도군	5명	8명	7.6대 1	3.9대 1	71.1%	87.1%
고령군	4명	3명	8.25대 1	8.3대 1	75.8%	84%
성주군	2명	3명	11.5대 1	7.3대 1	73.9%	72.73%
칠곡군	6명	3명	9.83대 1	10대 1	72.9%	83.33%
예천군	7명	4명	8.7대 1	8.8대 1	68.9%	80%
봉화군	2명	4명	9대 1	9.3대 1	55.6%	91.89%
울진군	10명	10명	5.9대 1	6.3대 1	86.4%	84.13%
울릉군	3명	6명	7대 1	2.7대 1	71.4%	93.75%
소계	160명	144명	8.92대 1	8.7대 1	76.1%	81.78%

### \*선발인원 160명→144명

2020년 경상북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선발인원은 총 160명이다.

포항시가 30명 선발로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 공고했으며 구미시가 1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경주시 12명 ▲안동시 12명 ▲영주시 2명 ▲영천시 13명 ▲상주시 6명 ▲문경시 9명 ▲경산시 1명 ▲군위군 3명 ▲의성군 8명 ▲청송군 3명 ▲영양군 3명 ▲영덕군 5명 ▲청도군 5명 ▲고령군 4명 ▲성주군 2명 ▲칠곡군 6명 ▲예천군 7명 ▲봉화군 2명 ▲울진군 10명 ▲울릉군 3명을 각각 선발 공고 했었다.

2021년 경상북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채용인원은 총 144명으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시 · 군별 채용예정인원은 다음과 같다. ▲포항시 17명 ▲경주시 8명 ▲김천시 8명 ▲안동시 6명 ▲구미시 6명 ▲영주시 2명 ▲영천시 4명 ▲상주시 7명 ▲문경시 14명 ▲경산시 17명 ▲군위군 6명 ▲의성군 4명 ▲청송군 4명 ▲청도군 8명 ▲고령군 3명 ▲성주군 3명 ▲칠곡군 3명 ▲예천군 4명 ▲봉화군 4명 ▲울진군 10명 ▲울릉군 6명이다.

전년대비 선발인원이 감소한 지역은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영천시, 의성군, 고령군, 칠곡군, 예천군이다.

포항시는 지난해 30명을 선발했으나 올해 17명으로 선발인원이 줄었고 안동시도 2020년 12명 선발에서 2021년 6명으로 감소했다.

영천시는 지난해 13명을 선발 공고했으나 올해 시험에서는 단 4명 선발에 그쳤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년대비 채용인원이 늘어난 지역은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청송군, 성주군, 봉화군, 울릉군 등이 있다.

김천시는 지난해 신규채용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8명을 선발 공고했다.

경산시는 2020년 단 1명만을 선발했으나 2021년 시험에서는 17명 채용으로 선발인원이 크게 늘어나 눈길을 끌었다.

### \*경쟁률 8.92대 1→8.7대 1

지난해 경상북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평균 경쟁률은 8.92대 1이었다.

출원인원은 총 1천427명이 접수를 마쳤다.

우선 각 시 · 군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포항시 7.1대 1 ▲경주시 11.17대 1 ▲안동시 10

대 1 ▲구미시 12.29대 1 ▲영주시 11대 1 ▲영천시 8.54대 1 ▲상주시 10.83대 1 ▲문경시 4.67대 1 ▲경산시 36대 1 ▲군위군 9.33대 1 ▲의성군 10.5대 1 ▲청송군 8.33대 1 ▲영양군 5.67대 1 ▲영덕군 9.2대 1 ▲청도군 7.6대 1 ▲고령군 8.25대 1 ▲성주군 11.5대 1 ▲칠곡군 9.83대 1 ▲예천군 8.71대 1 ▲봉화군 9대 1 ▲울진군 5.9대 1 ▲울릉군 7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지역별 출원인원은 다음과 같다. 포항시에 213명이 접수를 마쳤고 구미시에 172명이 출원했다.

이와 함께 ▲경주시 134명 ▲안동시 120명 ▲영주시 22명 ▲영천시 111명 ▲상주시 65명 ▲문경시 42명 ▲경산시 36명 ▲군위군 28명 ▲의성군 84명 ▲청송군 25명 ▲영양군 17명 ▲영덕군 46명 ▲청도군 38명 ▲고령군 33명 ▲성주군 23명 ▲칠곡군 59명 ▲예천군 61명 ▲봉화군 18명 ▲울진군 59명 ▲울릉군 21명이었다.

올해 경상북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평균 경쟁률은 8.7대 1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다.

영주시가 18.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구미시가 18대 1의 경쟁률로 그 뒤를 이었다.

각 시 · 군별 경쟁률 현황은 다음과 같다. ▲포항시 10.5대 1 ▲경주시 9.6대 1 ▲김천시 6.9대 1 ▲안동시 11.3대 1 ▲영천시 10대 1 ▲상주시 8대 1 ▲문경시 7.3대 1 ▲경산시 9.6대 1 ▲군위군 6.2대 1 ▲의성군 11대 1 ▲청송군 8대 1 ▲청도군 3.9대 1 ▲고령군 8.3대 1 ▲성주군 7.3대 1 ▲칠곡군 10대 1 ▲예천군 8.8대 1 ▲봉화군 9.3대 1 ▲울진군 6.3대 1 ▲울릉군 2.7대 1로 각각 나타났다.

참고로 이번 시험의 출원인원은 총 1천257명이었다.

지역별 원서접수 인원은 ▲포항시 178명 ▲경주시 77명 ▲김천시 55명 ▲안동시 68명 ▲구미시 108명 ▲영주시 37명 ▲영천시 40명 ▲상주시 56명 ▲문경시 102명 ▲경산시 164명 ▲군위군 37명 ▲의성군 44명 ▲청송군 32명 ▲청도군 31명 ▲고령군 25명 ▲성주군 22명 ▲칠곡군 30명 ▲예천군 35명 ▲봉화군 37명 ▲울진군 63명 ▲울릉군 16명이 각각 접수를 마쳤다.

### \*응시율 76.1%→81.78%

2020년 경상북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필기시험 응시율은 평균 76.1%로 나타났다.

울진군이 86.4%로 가장 높은 응시율을 기록했고 봉화군이 응시율 55.6%로 가장 낮았다.

이밖에 ▲포항시 78.9% ▲경주시 77.6% ▲안동시 73.3% ▲구미시 76.7% ▲영주시 68.2% ▲영천시 79.3% ▲상주시 78.5% ▲문경시 64.3% ▲경산시 63.9% ▲군위군 78.6% ▲의성군 79.8% ▲청송군 76% ▲영양군 76.5% ▲영덕군 84.8% ▲청도군 71.1% ▲고령군 75.8% ▲성주군 73.9% ▲칠곡군 72.9% ▲예천군 68.9% ▲울릉군 71.4%를 각각 기록했다.

2021년 경상북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필기시험 평균 응시율은 81.78%로 전년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각 지역별 필기시험 응시율은 ▲포항시 78.65% ▲경주시 76.62% ▲김천시 87.27% ▲안동시 83.82% ▲구미시 77.78% ▲영주시 83.78% ▲영천시 72.5% ▲상주시 83.93% ▲문경시 82.35% ▲경산시 84.15% ▲군위군 81.08% ▲의성군 79.55% ▲청송군 84.38% ▲청도군 87.1% ▲고령군 84% ▲성주군 72.73% ▲칠곡군 83.33% ▲예천군 80% ▲봉화군 91.89% ▲울진군 84.13% ▲울릉군 93.75%로 나타났다.

### \*합격선

지난해 경상북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필기시험 합격선은 다음과 같다. ▲포항시 345.46점 ▲경주시 363.88점 ▲안동시 348.19점 ▲구미시 368.25점 ▲영주시 311.86점 ▲영천시 348.05점 ▲상주시 358.78점 ▲문경시 337.76점 ▲경산시 325.49점 ▲군위군 367.61점 ▲의성군 360.98점 ▲청송군 334.81점 ▲영양군 305.04점 ▲영덕군 351.23점 ▲청도군 364.64점 ▲고령군 355.50점 ▲성주군 349.94점 ▲칠곡군 347.75점 ▲예천군 341.62점 ▲봉화군 298.92점 ▲울진군 327.70점 ▲울릉군 346.28점이다.

올해 경상북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필기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포항시 370.75점 ▲경주시 358.22점 ▲김천시 339.22점 ▲안동시 365.98점 ▲구미시 358.42점 ▲영주시 373.30점 ▲영천시 360.55점 ▲상주시 357.94점 ▲문경시 348.74점 ▲경산시 361.38점 ▲군위군 326.56점 ▲의성군 364.92점 ▲청송군 364.85점 ▲청도군 338.19점 ▲고령군 351.97점 ▲성주군 352.99점 ▲칠곡군 339.95점 ▲예천군 356.87점 ▲봉화군 327.19점 ▲울진군 349.16점 ▲울릉군 292.12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 박문각 공무원

공무원 시험, 빠른 합격 전략을 제시합니다

## 2022년 공무원 시험

# 합격전략 설명회



박문각 NET CLASS & 박문각 YouTube 동시시청 가능!

박문각 YouTube

일	화	수	목	금	토
<b>8월 설명회 일정</b>		<b>8/25</b> <b>14시</b> <b>외인구단</b> 천지현, 김정일	<b>8/26</b> <b>14시</b> <b>교육행정직</b> 오현준	<b>8/27</b> <b>14시</b> <b>교정직</b> 이준	<b>8/28</b> <b>14시</b> <b>다이아/탐스타</b> 김태성, 노범석 <b>16시</b> <b>7급PSAT</b> 김영진
8/30	<b>8/31</b> <b>14시</b> <b>이수천</b> <b>세무단독반</b> 이수천, 박기훈, 강세진, 진가영	<b>9/1</b> <b>14시</b> <b>다이아</b> 선우빈, 헤더진, 이명훈	<b>9/2</b> <b>14시</b> <b>탐스타</b> 유대웅, 노범석	<b>9/3</b> <b>14시</b> <b>세무직</b> 신은미, 김용민	<b>9/4</b> <b>14시</b> <b>다이아/탐스타</b> 선우빈, 김세현 <b>16시</b> <b>소방직</b> 조동훈, 김태은



## 「2021년 지방직 9급 공무원」 국어(A형) 기출문제 해설(4)

| 박혜선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 1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오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결은 간 데 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 (나) 벌레먹은 두리기둥 빛 낡은 단청(丹青) 풍경 소리 날려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동주리를 마구쳤다.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좌(玉座) 위엔 여의주(如意珠) 희롱하는 쌍룡(雙龍) 대신에 두 마리 봉황(鳳凰)새를 틀어올렸다. 어느 뎨들 봉황이 울었으랴만 푸르른 하늘 밑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패옥(佩玉) 소리도 없었다. 품석(品石) 옆에서 정일품(正一品) 종구품(從九品) 어느 줄에도 나의 몸들 곳은 바이 없었다.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九泉)에 호곡(呼哭)하리라.

- ① (가)는 '산천'과 '인결'을 대비함으로써 인생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쌍룡'과 '봉황'을 대비함으로써 사대주의적 역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선경후정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맞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답] ④ ★ 역대급 기출 + 동형 쌍끝이 7주차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적중!

#### [부정 / 정답 풀이]

여러 문운이 나와서 비교, 대조하는 유형이 종종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각각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분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가)는 길재의 시조, (나)는 조지훈의 「봉황수」라는 작품이다.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맞춰 시상을 전개하는 것은 형식이 정해져 있음을 뜻하는 '정형시'를 의미한다. (가)는 시조이므로 4음보, 3·4(4·4)조의 율격을 따르는 정형시이다. 하지만 (나)는 현대시이므로 정형시가 될 수 없다. 대부분의 현대시는 현대시조를 빼고 거의 자유시이기 때문이다. (나)는 산문적인 리듬을 가진 산문시이므로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맞춰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④는 옳지 않다.

#### ♣ <오백년 도읍지를~, 길재

이 작품은 고려 충신이었던 길재가 조선이 세워진 직후에 고려 왕조를 회고하며 지은 시조이다. 이를 회고가라는 한다.

갈래	평시조
성격	회고적, 감상적
제재	고려의 옛 도읍지(오백년 도읍지)
주제	망국의 한과 인생무상
특징	① 비유적 표현과 대구법, 영탄법(어즈버)을 사용하여 고려 왕조 멸망의 한을 노래함. ② 유구한 자연과 무상한 인간사를 대조하고 있음. ③ 선경후정의 시상전개방식
출전	"병와가곡집"

#### ♣ <봉황수>, 조지훈

퇴락한 왕궁을 소재로 하여 '봉황새'에 화자의 심리를 투영시키는 기법을 통해 망국의 비애감을 표현하고 있다.

갈래	산문시, 서정시
성격	우국적(=나라일을 근심하고 염려함.)
제재	퇴락한 고궁
주제	망국(亡國)의 비애
특징	① 시적 화자의 정서를 봉황새에 이입시킴. (봉황새야 구천(九泉)에 호곡(呼哭)하리라.) ② 역사의 사대주의에 대한 화자의 비판 의식이 드러남. ③ 선경 후정(先景後情)으로 시상을 전개함.

#### [긍정 / 오답 풀이]

- ① (가)의 산천은 옛 모양과 다름없되, 특히 뛰어난 인제(인결)은 간 곳이 없다고 한다. 변하지 않는 산천과 변하는 인결을 대비함으로써 인생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인생의 무상함은 종장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아아, 태평하고 안락한 세월이 꿈인가 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사대주의란 '주체성이 없어, 세력이 강한 나라나 사람을 붙좃아 자신의 존립을 유지하려는 주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좃아 자신의 존립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좌(玉座) 위엔 여의주(如意珠) 희롱하는 쌍룡(雙龍) 대신에 두 마리 봉황(鳳凰)새를 틀어올렸

다."를 보면, 큰 나라를 섬기다 거미줄을 친, 즉 망해버린 우리나라의 역사를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쌍룡'은 주로 '중국황제'를, '봉황'은 우리나라의 임금을 상징한다. 이것을 모르더라도 쌍룡 대신에 봉황을 틀어 올렸다는 부분에서 이 둘이 대비됨을 알아차려야 한다.

아마 이 선택지가 ④번 다음으로 애매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판단을 잠깐 미루고 나머지 3개의 선택지에서 더 답을 찾아야 하며, 생각보다 답이 3개 중에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한 적 이 있다.

- ③ 선경후정의 기법이란, 처음에는 경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나중에는 화자의 정서가 언급되는 시상전개방식이다. (가)는 먼저 오백년 도읍지를 한 필의 말과 함께 돌며 산천(자연)의 경치가 옛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경치를 언급한다. 그 이후에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정서를 노래하므로 선경후정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벌레 먹은 두레 기둥, 빛낡은 단청, 쌍룡 대신 봉황새를 틀어올린 모습 등 경치를 묘사하고 마지막에 "봉황새야 구천(九泉)에 호곡(呼哭)하리라.(목 놓아 슬피 울리라)"에서 정서가 드러나므로 선경후정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선경후정 VS 선정후경

선경후정	처음에는 경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나중에는 화자의 정서가 언급되는 시상전개방식
선정후경	처음에는 화자의 정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나중에는 경치가 언급되는 시상전개방식

### 1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할 때 특정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물의 속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사물의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훈련받은 아이들은 스스로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받는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의사소통을 가르칠 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화에 임해야 하며,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강조한다.

반면에 일본의 어머니들은 대상의 '감정'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르친다. 특히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에 그러하다. 예를 들어 "네가 밥을 안 먹으면, 고생한 농부 아저씨가 얼마나 슬프겠니?", "인형을 그렇게 던져 버리다니, 저 인형이 울잖아. 담장도 아파하잖아." 같은 말들로 꾸중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보다는 행동에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도록 교육받는다. 곧 일본에서는 아이들에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것을 강조한다.

- ① 미국의 어머니는 듣는 사람의 입장, 일본의 어머니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강조한다.
- ② 일본의 어머니는 사물의 속성을 아는 것이 관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③ 미국의 어머니는 어떤 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이면에 있는 감정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미국의 어머니는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며, 일본의 어머니는 자녀가 타인의 감정을 예측하도록 교육한다.

[정답] ④ ★ 역대급 기출 + 국가직, 지방직 동형 유형 훈련 적중

#### [긍정 / 정답 풀이]

비문학 지문에서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지시하는 문제는 보통 "중심내용"을 찾으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의 중심화제는 '미국의 어머니와 일본의 어머니의 교육방식'으로 서로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있다. 1문단에서 "사물의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훈련받은 아이들은 스스로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받는다."며 미국의 교육방식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곧 일본에서는 아이들에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것을 강조한다."며 일본의 교육방식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어머니는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며, 일본의 어머니는 자녀가 타인의 감정을 예측하도록 교육한다는 ④가 글의 내용과 부합한다.

#### [부정 / 오답 풀이]

- ① 미국의 어머니는 말하는 자신의 입장을, 일본의 어머니는 듣는 사람의 입장을 강조하므로 이 선택지는 옳지 않다.
- ② 사물의 속성을 아는 것이 관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본의 어머니가 아니라 미국의 어머니이다. 1문단에서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할 때 특정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물의 속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또한 2문단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라며 일본의 교육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③ 이면에 있는 감정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어머니가 아니라 일본의 어머니이다.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박문각 공무원

박문각은 합격할 때까지! 합격으로 가는 계획의 첫 START

# 9급 종합반 大개강!

개강일 9월 6일 월 \*순차개강

업계최초! 직렬 교수팀 개강!

전담팀 교수님들이 합격까지 책임집니다

합격할 때까지 현장강의와 올패스를 무제한 수강하는 말로만 합격 보장이 아닌, "진짜 합격"

현강패스

### 일반행정직 4개의 전담팀

### 직렬별 전문 전담팀



입학상담 | 노량진로 146 이데아빌딩 1층

N | 박문각 공무원 Q



# 「2022년 9급 시험대비」 영어 독해 입문 특강(4)

| 김세현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 [구문분석 03] 명사(주어)뒤에 올 수 있는 모든 것들

### 1. 명사 (주어) + 전치사구 + V

- The vitamin C in the food is beneficial to your health.
- Employees in the clinic center of this town are thin.
- The place for eating meals in this store is not enough.

### 2. 명사 (주어) + 관계사 / 동격의 접속사 that + ... V1 ... V2

- The players who lost the game were angry.
- The house where (in which) they lived needs to be painted.
- The fact that his younger sister passed the exam surprised me.

[Tip One] 관계사 / 동격의 접속사 해석요령

- The book that I wanted...
- The day when we talked together...
- The news that she killed herself...

### 3. 명사 (주어) + (관계사 / 동격의 접속사 that) + ... S1 + V1 ... V2

- The members I met at the office were kind.
- Houston we lived for years is a wonderful and nice city.
- The evidence the obesity was growing turned out to be true.

### 4. 명사 (주어) + 형용사 + 딸린 어구 (전치사구/ 부사(구)) + V

- The food poor in nutrition makes me sick.
- The problems difficult in the exam could be solved.
- The issue important 10 days ago was revealed in the media.

### 5. 명사(주어) + 과거분사 + 딸린 어구 (전치사구/ 부사(구)) + V

- The wallet stolen in the mall yesterday returned to me.
- The AI robot made in the laboratory shop helped us to work.
- The technology created by innovation changed the world industry.

[Tip One] 과거동사와 과거분사 구별방법

- The waste thrown out on the street reflected our morality.
- The achievement gained from efforts helped her attend the college.
- The news heard from his best friend really surprised him at the moment.

### 6. 명사 (주어) + 현재분사 + 딸린 어구 (의미상 목적어 / 전치사구/ 부사(구)) + V

- The man experiencing the difficulty earned much money.
- The musician playing the guitar at the lounge is my friend.
- The spokesman blaming me yesterday was fired from the board.

### 7. 명사 (주어) + to 부정사 + 딸린 어구 (의미상 목적어 / 전치사구/ 부사(구)) + V

- The ability to earn money is valuable to him.
- The knowledge to make her succeed is from her mom.
- The custom to exist in this town is precious to the villagers.

### 8. 명사 (주어) + 부사(구) + V

- The students always / sometimes / hardly / never / really / get up early.
- The students then / two days ago / realized that the teacher was nice.

[Tip One] 부사의 역할

주어와 동사 사이에 부사(구)는 앞에 있는 주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항상 뒤에 있는 동사에만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있는 부사는 독해할 때 그닥 중요치 않아요. 그냥 무시 하고 넘어가도 큰 무리는 없어요. 단, 부정부사는 꼭 신경 쓰세요. 내용이 완전 바뀌니까요.

※ 부정부사 never, little, no longer, hardly, seldom, rarely, barely, scarcely

### 9. 명사 (주어) + ,(-) 삽입구(절) ,(-) + V

- Mr. Kim, a nice guy, is an excellent teacher.
- Mr. Kim - as you know - is an excellent teacher.

[Tip One] 삽입구(절)의 역할

주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삽입구(절)이 위치합니다. 중요한 것은 독해를 할 때 삽입구(절)은 skip하고 넘어가도 돼요. 정말 별 볼일 없는 정보랍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 [확인학습문제 3]

다음 문장을 읽고 주어를 찾아 S 표시하고 동사 앞에서 끊어 읽기 ( / ) 한 다음 주어 파트를 아래 예문처럼 분석한 후 우리말로 해석해 보세요.

[Ex 1.] People climbing the high mountain / are my friends.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S 현재분사 의미상 목적어 V

[Ex 2.]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10 years ago) / was excellent. [10년 전 그나라의 발전은]

S 전치사구 부사구 V

01. The heavy rain of the area caused the river to overflow.
02. People living along the beach are familiar with swimming.
03. The boy whom I invited to the party was looking for me.
04. The prime factor to be considered in education is our child.
05. My question, why she did it herself, was never answered.
06. A failure in knowing the difference makes a wrong policy.
07. The computer program we bought last summer is not cheap.
08. Egyptians conquered by Romans in 30 B.C. kept on worshipping gods.
09. The difference between the impossible and the possible lies in your mind.
10. The day when I met her parents for the first time was on Monday.
11. Young people learning a second language can achieve fluency easily.
12. The translating file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has been developed.
13. The process of introducing a new idea or object is known as innovation.

## [확인학습문제 3] 정답 및 해설

01. The heavy rain (of the area) / caused the river to overflow. [그 지역의 폭우가]  
S 전치사구 V
02. People (living along the beach) / are familiar with swimming. [해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S 현재분사 전치사구 V
03. The man (whom I invited to the party) / was looking for me. [내가 파티에 초대했던 그 남자가]  
S 관계사절 V
04. The prime factor [to be considered (in education)] / is our child. [교육에서 고려되는 주요한 요소는]  
S to부정사 전치사구 V
05. My question, (why she did it herself), / was never answered. [왜 그녀가 스스로 그것을 했는지에 대한 내 질문은]  
S 삽입절 V
06. A failure (in knowing the difference) / makes a wrong policy. [차이를 아는데 있어서 실패는]  
S 전치사 동명사 의미상 목적어 V
07. The computer program (we bought last summer) / is not cheap. [우리가 지난 여름 샀던 컴퓨터 프로그램은]  
S 관계사절 V
08. Egyptians [conquered (by Romans)] (in 30 B.C.) / kept worshipping gods. [B.C.30년 로마에 의해 정복된 이집트인들은]  
S 과거분사 전치사구 전치사구 V
09. The difference (between the impossible and the possible) / lies in your mind.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들 사이에 차이점은]  
S 전치사구 V
10. The day (when I met her parents for the first time) / was on Monday. [내가 그녀의 부모를 처음 만난 그날은]  
S 관계사절 V
11. Young people [learning a second language] can achieve fluency easily. [제 2외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은]  
S 현재분사 의미상 목적어 V
12. The translating file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 has been developed.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파일은]  
S 전치사구 전치사구 V
13. The process (of introducing a new idea or object) / is known as innovation. [새로운 아이디어나 물건을 소개하는 과정은]  
S 전치사 동명사 의미상 목적어 V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박문각 공무원

전강좌 무제한 수강에 캠관리, 환급까지!

2022



# 공무원 올패스

올패스 5기 8월 31일(화) 마감 이후 **가격 인상!**

**8월 한 달만!  
특별 할인 중!**

### 01 이벤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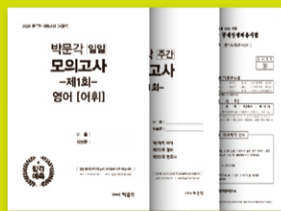
7급 1년 올패스  
3개월 추가 제공

### 02 이벤트 ★

7급 평생 올패스  
50만원 특별 할인



공무원 전과목  
무제한 수강



매일 / 매주 / 매월  
합격예측 모의고사

업계  
최초



학원이 직접 관리하는  
박문각 캠퍼스터디



# 「2022년 9급 시험대비」 한국사 기초입문(2)

| 노범석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 Chapter 3. 지도로 주요 지역 정리



## Chapter 4. 알아두면 좋은 중국사



## Chapter 5. 선사시대

◆ 선사시대		신석기	청동기
	70만 년 전	B.C. 8천 년 전	B.C. 2000년 전
사회	무리사회	평등사회 씨족 중심의 부족 사회 - 족외혼	계급사회 군장국가
도구	편석기-사냥용	간석기-농기구	비파형 동검 반달돌칼
경제	채집, 수렵	원시 농경 → 조, 피, 수수	본격적 농경 → 벼농사 시작
주거	동굴, 막집 → 이동	움집(강가, 해안) 반지하, 원형 화덕(중앙)	움집(아산, 구릉) 지상화, 직사각형, 화덕(벽) 배산임수(취락)
신앙	주술적	원시신앙(애니, 토템, 샤머)	선민사상(제정일치)

◆ 여러나라의 성장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
위치	만주 송화강	압록강 졸본	함흥평야	강원도(원산만)	한강 이남(진의 성장)	
국가	연맹 왕국(5부족) 왕: 지배자 × → 대표자 ○	연맹 왕국	군장 국가: 왕 없음		마한54, 변한12, 진한12	
정치	가(加): 사출도 대사자, 사자	대가 (상가, 고추가) 사자, 조의, 선인	읍군, 삼로, 후		목지국왕 = 삼한 대표	
경제	반농반목, 말, 주옥, 모피	졸본: 산악 지방 약탈 경제(부경)	토지 비옥 소금, 해산물	방직기술 발달 단궁, 과하마, 반어피	• 벼농사 발달 → 1. 저수지 축조 多 2. 두레 3. 제천행사(2회) • 철도: 변한 → 가야	
제천 행사	영고(12월) → 수렵사회의 전통	동맹(10월), 국동대혈	×	무천(10월)	수릿날(5월), 계절제(10월)	
풍습	순장, 흰옷 형사취수제 4조법: 1책 12법	서옥제, 형사취수제, 1책 12법	민머느리제, 가족 공동묘	책화, 족외혼 → 씨족사회 풍습 :: 폐쇄적 지형	• 소도(벌읍) : 천군, 제정분리 • 반움집(토실), 귀틀집, 주구묘(마한)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수강 4회독 효과! 해법국사!!**  
**해법국사 노범석 교수**  
**노범석 한국사 기본 이론** [ 개강 : 2021/09/09 ]  
 시 간 : [목] 09:00~13:00  
 [금] 09:00~13:00 [금-2,4주격주수업]  
**노범석 한국사 필기노트 특강** [ 개강 : 2021/09/13 ]  
 시 간 : [월·화] 14:00~18:00 [7주]

# 박문각 공무원

## 박문각 공무원 9급

2022년, 당신을 합격 TOP STAR로 만들어줄 해결사!

TOP STAR팀

# 일반행정직 전담



국어 박혜선

영어 김세현

한국사 노범석

행정학 조은종

행정법 유대웅

일반행정 탑스타팀 종합반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09:00~13:00)	영어(김세현)	영어(김세현)_2h 국어(박혜선)_2h	국어(박혜선)	한국사(노범석)	한국사 (노범석)_짝 행정학 (조은종)_홀	행정학(조은종)
야간 (18:30~21:50)	행정법(유대웅)	행정법(유대웅)				

## 차곡차곡 정리하는 「한자성어」

한자성어		뜻
경당문노 耕當問奴	밭 갈 경 / 마땅 당 물을 문 / 종 노	농사짓는 일은 머슴에게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모르는 일은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 보는 것이 좋다는 말.
경세지책 經世之策	지날 경 / 인간 세 갈 지 / 꾀 책	경세(經世)의 방책.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계책이나 방책.
경화수월 鏡花水月	거울 경 / 꽃 화 물 수 / 달 월	거울에 비친 꽃과 물 위에 비친 달이라는 뜻으로, 눈에는 보이나 가질 수는 없음을 비유하는 말.
군계일학 群鷄一鶴	무리 군 / 닭 계 한 일 / 학 학	닭의 무리 속에 있는 한 마리의 학. 평범한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 뛰어난 한 사람이 섞여 있음을 비유하는 말.
계명구도 鷄鳴狗盜	닭 계 / 울 명 개 구 / 도둑 도	점잖은 사람이 배울 바가 못 되는 천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말함.
괘목상대 刮目相對	긫을 괘 / 눈 목 서로 상 / 대할 대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라울 정도로 부쩍 늘어난 것을 경탄하여 눈을 비비고 주의하여 다시 봄. 일반적으로 자기 윗사람에게는 쓰지 않음.
고식 姑息	시어머니 고 / 쉬 식	잠시 숨을 쉰다는 뜻. 당장에는 탈이 없는 잠시 동안의 안정,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어우러 이르는 말.
고신열자 孤臣孽子	외로울 고 / 신하 신 서자 열 / 아들 자	고신은 원신(遠臣), 열자는 서자(庶子). 임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신하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식.
골육상쟁 骨肉相爭	뼈 골 / 고기 육 서로 상 / 다툼 쟁	가까운 혈족끼리 서로 싸움. 부자, 형제 또는 동족 간의 싸움.
고육지계 苦肉之計	괴로울 고 / 살 육 갈 지 / 꾀 계	궁한 처지에 몰려 상대방을 속이기 위하여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꾸미는 계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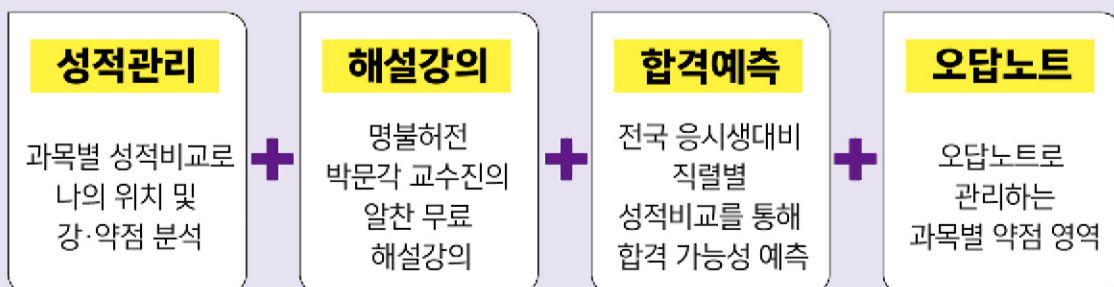
## ‘SPEED’ 영단어 암기(112)

- 698. **reluctant**  
: 꺼리는, 내키지 않아 하는(=unwilling, disinclined, hesitant)  
▷ He is **reluctant** to talk to his home room teacher.  
(그는 담임선생님과 얘기하는 것을 꺼린다.)
- 699. **proliferate**  
: 급증하다, 확산하다(=multiply, increase, expand)  
▷ Japanese restaurants have **proliferated** in the town.  
(시내에 일식집이 급증했다.)
- 700. **restrain**  
: ~을 억제하다, 억누르다(=control, curb, inhibit, repress)  
▷ He tried to **restrain** his feelings.  
(그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노력했다.)
- 701. **resurrection**  
: 부활, 부흥(=revival, restoration, resurgence)  
▷ He's doing his best for the **resurrection** of traditional folk music.  
(그는 정통 민속 음악의 부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 702. **retard**  
: ~을 늦추다, 지연시키다, 저능아(=slow down, delay, decelerate, hold back)  
▷ Cold weather **retards** the growth of many plants.  
(추운 날씨는 많은 식물들의 성장을 지연시킨다.)
- 703. **revamp**  
: ~을 쇠신하다, 개편하다(=change, amend, revise, renovate)  
▷ They want to **revamp** their image.  
(그들은 이미지를 쇠신하고 싶어 한다.)
- 704. **spontaneous**  
: 자발적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voluntary, automatic)  
▷ The crowd gave a **spontaneous** cheer.  
(관중은 자발적인 환호를 보냈다.)
- 705. **spooky**  
: 으스스한, 섬뜩한(=chilling, ghostly, weird)  
▷ There is a **spooky** cave on the hill in back of the village.  
(마을 뒷산에는 으스스한 동굴이 있다.)

2022년도 9급공무원 시험대비

# 박문각 합격예측 전국 모의고사

"합격자 3명 중 2명은 1년 내 합격하는 박문각의 진짜 학습관리"



\*박문각공무원 스태프가, 기숙인기반을 수강한 60명 중 40명 기준(2020년 국가직 필기/지방직 최종합격자)

온라인 / 오프라인 동시시행  
**2021. 09. 12(일)**  
**오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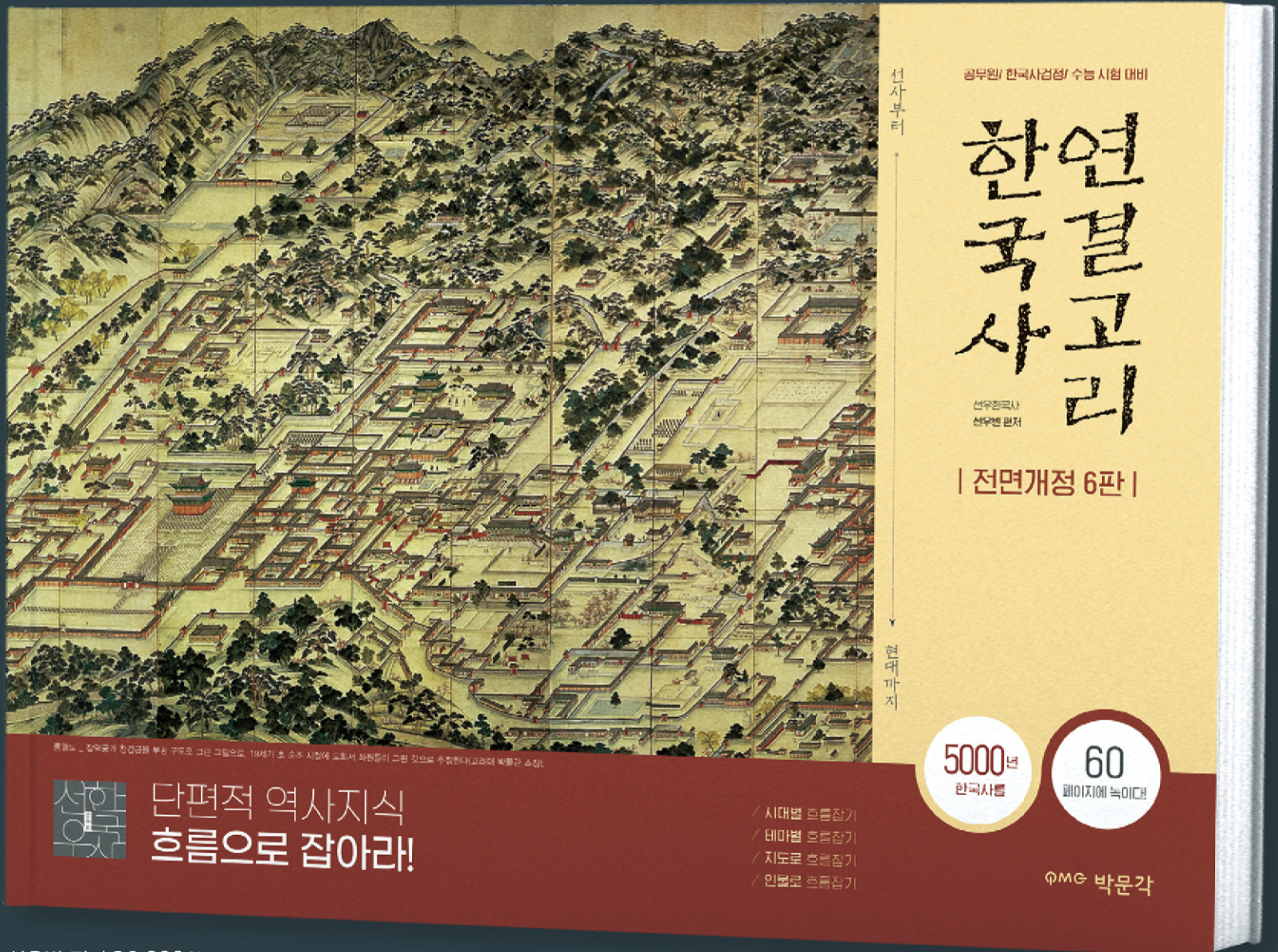
응시 직 렬

일반행정  
세무  
교육행정  
기술직

박문각 공무원

# 전면개정 6판 한국사 연결고리

선사부터 현대까지  
5000년 한국사를 60페이지에 녹이다!



단편적 역사지식  
흐름으로 잡아라!

- / 시대별 흐름잡기
- / 테마별 흐름잡기
- / 지도로 흐름잡기
- / 인물로 흐름잡기

5000년  
한국사를

60  
페이지에 녹이다

PMG 박문각

선우빈 편저 13,000원

흐름으로 잡는 **선우한국사** 만점전략

- / 시대별 흐름잡기
- / 테마별 흐름잡기
- / 지도로 흐름잡기
- / 인물로 흐름잡기

노량진학원 02)815-7819, 3280-9990 | 온라인 02)3489-9500

# 박문각 공무원

## 박문각 공무원 9급

이수천 세무 단독반

# 세무직 전담



국어 강세진

영어 진가영

한국사 박기훈

세법 이수천

세법 김용민

회계학 신은미

### 이수천 세무 단독반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b>오전 (10:00~13:00)</b>	한국사(박기훈)	영어(진가영)	국어(강세진)	영어(진가영)	한국사(박기훈)	
<b>오후 (14:00~18:00)</b>	세법(이수천/김용민)		회계학(신은미)			



# 박문각 공무원

문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착순 200명

무·조·건

# 20만원!

9월 6일(월) 대개강

## 엘리버드 행운번호 이벤트 No.1

### ◆ 무료를 잡아라! ◆

수강신청번호 1번, 100번, 200번은  
종합반 수강료 완전 무료!

### ◆ 반값을 잡아라! ◆

수강신청번호 끝자리 1번은  
종합반 10만원 할인!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열정만** 갖고 오세요!

✓  
**9급**  
이론종합반

✓  
**7급**  
이론종합반

✓  
**불꽃소방**  
이론종합반

✓  
**군무원**  
이론종합반

## 걱정 NO! 박문각은 다 해드립니다!



**노베이스 걱정 NO!**  
개념정리 1회독 마스터



**불합격 걱정 NO!**  
업계최초 직렬 전담팀 개설



**커리큘럼 고민 NO!**  
전담 교수님과 1:1 상담



## 「2021년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 및 해설(4)

| 조은종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 17. 엘리스(Allison)모형 중 다음 내용에 초점을 두고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것은?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미국은 해안봉쇄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정부의 각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각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자들은 여러 대안에 대하여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거쳤고, 결국 해안봉쇄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대통령이 사태 초기에 선호했던 국지적 공습과는 다른 결정이었다. 물론 해안봉쇄가 위기를 해소하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보장은 없었고, 부처에 따라서는 불만을 가진 대표자도 있었다.

-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
- ② 쓰레기통 모형
- ③ 조직과정 모형
- ④ 관료정치 모형

[정답] ④

[해설] 관료정치모형의 특징에 해당한다. 관료정치모형은 각 부처를 대표하는 개인들이 타협과 조정 등 정치적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 엘리스는 국가적 위기 시에도 모형1(합리적 행위자모형)에 의해서만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형3과 같은 정치적 결정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제시문의 핵심 키워드는 부처를 대표하는 개인들의 갈등과 타협이다.

### 18.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도는 법률, 규범, 관습 등을 포함한다.
- ②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경로의존성을 따른다고 본다.
- ③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 ④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가 합리적 행위자의 이기적 행태를 제약한다고 본다.

[정답] ③

[해설] 반대이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에 새로운 제도적 행태나 관행이 채택된다고 본다(적절성의 논리).

### 19. 정책실험에서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사전측정을 경험한 실험 대상자들이 측정 내용에 대해 친숙해지거나 학습 효과를 얻음으로써 사후측정 때 실험집단의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효과이며, '눈에 띄지 않는 관찰'방법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

- ① 검사요인
- ② 선발요인
- ③ 상실요인
- ④ 역사요인

[정답] ①

[해설] 검사요인(측정요인, 시험효과, Testing)에 대한 설명이다.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외재적 요인	선발요인 (선정요인; Selection)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두 집단에 성격이 다른 구성원들을 선발하여 할당할 때 나타나는 문제
내재적 요인	역사요인 (History)	실험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사건효과라고도 함.)
	성숙효과 (Maturation)	실험집단의 구성원들이 정책의 효과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성장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
	상실요인	실험 중 대상집단의 일부가 탈락해서 남아 있는 대상이 처음과 다른 경우에 발생
	측정요인(Testing)	측정 그 자체가 연구되고 있는 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
	회귀인공요인 (Regression Artifact)	실험 직전 1회의 측정결과를 토대로 집단을 구성할 때 극단적인 결과가 나온 사람들로 실험했을 때 실험하는 동안 본래로 돌아감(통계적 회귀).
	측정도구의 변화 (Instrumentation)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집행 전과 집행 후에 측정하는 절차나 측정도구가 변화되는 것
	오염효과(확산효과; Contamination)	정책의 내용이 통제집단에게 누출되고, 통제집단이 실험집단의 행동을 모방하는 모방효과를 합친 것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선발된 개인들이 최초에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 두 집단의 성장 또는 성숙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남.
--------------	---

### 20.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시장-의회(strong mayor-council) 형태에서는 시장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한다.
- ② 위원회(commission) 형태에서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집행부서의 장을 맡는다.
- ③ 약시장-의회(weak mayor-council) 형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한다.
- ④ 의회-시지배인(council-manager) 형태에서는 시지배인이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④

[해설] 의회-시지배인(council-manager)형태에서는 시지배인이 실질적인 행정을 총괄한다. 시장은 의례적·명목적 기능만 수행하고 실질적으로는 의회가 임명한 전문행정관 즉, 시지배인 또는 시정관리관(city manager)이 집행기능을 총괄한다.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

[기관통합형의 유형]

의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가 입법기능과 집행기능 전반을 담당하기 때문에 단체장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의회의 의장이 자치단체를 대표</li> <li>• 의회는 전문기능별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분과위원장이 각 행정부서의 장이 됨.</li> <li>•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국가</li> </ul>
위원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에 선출한 3~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행사</li> <li>• 각 위원은 각각 담당하는 전문기능 분야를 갖고 각 행정부서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li> <li>• 미국의 county(소규모 자치단체에 유리한 방식)</li> </ul>
의회의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의회 의장이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지위를 겸하고, 지방의회 의장 밑에 집행 사무조직을 두는 형태</li> <li>• 프랑스의 중간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채택된 유형</li> </ul>

[기관대립형의 유형]

의회-수장형	약시장-의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기관장의 인사와 예산에 대한 권한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음</li> <li>•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집행업무에 관여하고 수장은 매우 제한된 범위의 행정권한만을 가짐</li> </ul>
	강시장-의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상대적으로 강력한 권한이 주어짐</li> <li>• 집행권을 가진 수장이 집행업무에 관한 실질적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지도자적 지위에 있음</li> </ul>

[절충형]

의회-관리자형 (council-mana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council)가 시정을 운영하는 책임을 맡지만, 관리자(manager)를 임명하여 집행기관의 임무를 담당하고 시장도 존재.</li> <li>• 의회는 입법방향을 결정하고 관리자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짐</li> <li>• 시장은 의례적·명목적 기능만 수행하고 실질적으로는 의회가 임명한 관리자(시지배인 또는 시정관리관; city manager)이 집행기능 총괄</li> </ul>
이사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지방의원들을 선출하고, 시의회가 지방정부의 주요사항을 결정</li> <li>•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집행은 이사회가 담당하게 되는데, 이사회 구성원은 의회에 의해 임명되고, 모두가 의원일 필요는 없음</li> <li>• 지방정부의 대표는 이사회 의장이 겸함</li> </ul>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교재와 다양한 혜택!

박문각북스파

박문각 북스파 구매평 이벤트!!

댓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 다.다.익.션

댓글 이벤트!!

북스파에서 도서 구매 후  
상품명(댓글)을 남겨 주시면 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적립금 및 쿠폰을 드립니다.

### 혜택 No.1

박문각 북스파에서 첫 번째 상품평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각 상품마다 첫 번째 상품평을  
남겨주시는 분들께~적립금 500원 즉시 지급!

### 혜택 No.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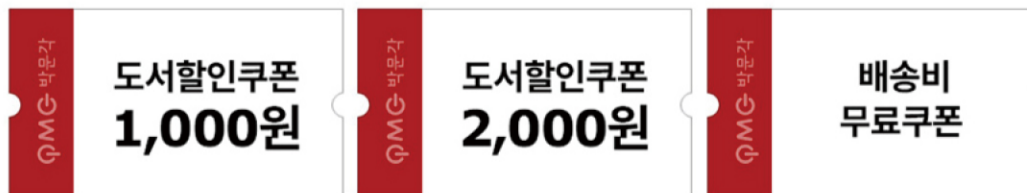
첫번째 이미 상품평이 있어도,실망말고  
상품평을 남겨주세요



각 남겨주시는 상품평마다  
적립금 100원 무조건~ 즉시 지급

### 혜택 No.3

이것은 추가 B.O.N.U.S~!



· 북스파 1,000원 도서할인쿠폰 - 10명 · 북스파 2000원 도서할인쿠폰 - 10명 · 배송비 무료쿠폰 - 10명

매달매달 상품평을 남겨주시는 분들중  
추첨을 통해 북스파 사이트에서 사용이 가능한 쿠폰 지급!

# 박문각 공무원

## 박문각 공무원 9급

박문각의 어떤 강의를 선택하셔도 여러분은 합격입니다!

다이아몬드/TopStar/극강의 외인구단

# 직렬별 전공 선택과목



교육학  
오현준

교정학  
이준

형법/형사소송법  
최정훈

세법  
이수천

세법  
김용민

회계학  
신은미

사회복지학  
어대훈

직렬별 전담팀 종합반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09:00~13:00)	국어, 영어, 한국사 → 다이아몬드팀/탑스타팀/극강의외인구단팀 중 택 영어 유희태 팀 (월09:00~13:00, 화 09:00~11:00) 선택 가능					교정직&검찰직 형사소송법 (최정훈)
오후 (14:00~18:00)	세무직 세법(이수천/김용민)		교정직 교정학(이준) 교육행정직 교육학(오현준)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어대훈) 검찰직 형법(최정훈) 세무직 회계학(신은미)	교정직 교정학(이준) 검찰직 형법(최정훈)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어대훈) 세무직 회계학(신은미)	교정직&검찰직 형사소송법 (최정훈)	

\*사회복지학: 9/1(수) 개강

노량진학원 02)815-7819, 3280-9990 | 온라인 02)3489-9500

# 박문각 공무원

2022년 공무원 시험대비

## HUMAN 사회복지학개론 다사공 심화이론

9월 1일(수) 개강

수목 14:00~18:30(2개월 완성)

수강료 | <280,000원> 196,000원(30%할인)

교재 | 2022 어대훈 HUMAN사회복지학개론  
(미래가치)



### 다사공(다치고 사회복지학 열공)

- 전 범위 대상으로 빠르게 수업하되, 출제 비중 및 출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효율적 수업 진행
- 휴먼 장학생 OX 모의고사 3회(총 200문제) 실시
  - 복습상태 점검 및 실력 강화
  - 열심히 복습해서 전공실력 향상 + 휴먼장학생 혜택 + 수험생활에 큰 활력소!
- ⇒ 휴먼 장학생 출신 10명 중 7~8명(=70~80%)이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OX 모의고사 일정  
9/15(40문제), 9/29(60문제), 10/20(100문제)

### 성적 우수자 휴먼장학금 지속적 지급(실강)

모의고사 평균 점수 \*2021년 7월까지 864명에게 27,040,000원이 지급됨

80.0~84.9	30,000원	+		+	
85.0~89.9	50,000원				
90.0~94.9	70,000원				
95.0 이상	100,000원				

휴먼상장 수여      쌤과 저녁식사

### Human 선생님의 깨알 선물

- 1) 휴먼 NEW 동기부여노트      4) 휴먼 3색 볼펜
- 2) 휴먼 L홀더 2개              5) 휴먼 컴퓨터용 사인펜
- 3) 휴먼 포스트잇 세트          \*실강은 매 강좌마다 지급/인강은 별도 안내

### Human 사회복지직 제자들의 감사의 글

다음 카페 '복지와 사람' 최종합격수기 글에서 발췌

#### 최주환 제자님 2020년 국가공무원 보호직 최종합격

저는 이번 지방직 면접(2020년도)에서 면탈을 경험했습니다. 면접관에게 잘 보여야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 오히려 면접을 망쳐버리는 최악의 사태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가직 면접에서는 어썸이 항상 강조하셨던 '소통'을 중점에 두고 면접을 보았고, 이번에 있었던 미달사태라는 행운까지 겹치면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단원별 모의고사 수업에서 마킹을 다 못 한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교님께서 OMR을 바로 건어가서 마킹을 못 한채로 답안지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마킹하는 방식을 바꿨는데, 그 덕분에 실제 시험장에서도 큰 실수 없이 마킹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내후년부터 선택과목제도가 없어지면서 사회복지학개론이 보호직 필수과목이 될 텐데, 어썸을 통해 많은 분들이 합격할 수 있었을면 좋겠습니다.

어썸만 따라가면 사회복지학 고득점은 무조건 가능하니까요!!!





## 2022년 9급 시험대비 국어 9품사 완전정복(3)

| 천지현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 [ 03 ] 접속 조사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를 접속 조사라고 한다.

와, 과, 하고, (이)나, (이)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련과 벚꽃이 모두 피었다.</li> <li>•떡하고 빵을 제일 좋아한다.</li> <li>•피자에 치킨에 음료수에 실컷 먹었다.</li> </ul>
-------------------------	---

### [ 기출체크 ]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 01. 밑줄 친 조사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2019. 서울시 7급

- ① 인생은 과연 뜬구름과 같은 것일까?
- ② 누구나 영수하고 친하게 지낸다.
- ③ 고등학교 때 수학과 영어를 무척 좋아했다.
- ④ 나와 그 친구는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다.

#### 02. 국어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7급

- ① '에서'는 '집에서 가져 왔다.'의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다.
- ② '는'은 '그는 학교에 갔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지만 '일을 빨리는 한다.'의 경우에는 보조사이다.
- ③ '가'는 '아이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지만 '그것은 종이 아니다.'의 경우에는 보격 조사이다.
- ④ '과'는 '눈과 같이 하얗다.'의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책과 연필이 있다.'의 경우에는 접속 조사이다.

#### 03. 밑줄 친 보조사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직 9급

- ①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는 지각하겠다.  
→ -는: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냄.
- ② 웃지만 말고 다른 말을 좀 해 보아라.  
→ -만: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냄.
- ③ 단추는 단추대로 모아 두어야 한다.  
→ -대로: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냄.
- ④ 비가 오는데 바람조차 부는구나.  
→ -조차: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을 나타냄.

### [ 해설 ]

#### 01. [정답찾기] ③

[해설]

'수학과 영어'의 '과'는 'and'의 의미로 대등하게 두 대상을 연결하는 데 쓰이는 접속 조사이다. 나머지는 부사격 조사이다.

[오답분석]

- ① '뜬구름과'의 '과'는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 ② '영수하고'의 '하고'는 '와'로 바꿀 수 있으며,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 ④ '나와 그 친구'는 서로 의지하는 대상이므로 '와'는 '상대'의 의미를 지닌 부사격 조사이다.

#### 02. [정답] ②

[해설]

보조사 '는'은 어떤 격 조사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도 보조사라는 사실이 변치 않는다. 따라서 ② '그는 학교에 갔다.'의 주어 자리에 들어간 '는'도 보조사이고, '일을 빨리는 한다.'의 부사어와 결합한 '는'도 보조사이다.

[오답분석]

- ① '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과 결합하면 부사격 조사이고, 단체 주어와 결합하면 주격 조사이다.

③ '가'는 주어와 결합했을 때는 주격 조사이고, '되다, 아니다'의 앞에서 보어와 결합하면 보격 조사이다.

④ '과'는 주어와의 비교 대상이나 주어의 동반자, 상대방 등을 나타내는 말과 결합하면 부사격 조사이고, 단순히 두 대상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역할로 쓰일 때는 접속 조사이다.

### 03. [정답] ①

[해설]

보조사 '는'은 ①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는 지각하겠다."에서 '대조'의 의미가 아니라 '강조'의 의미로 쓰였다.

### Thema 용언 1: 동사, 형용사

이 테마는?

품사의 구별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그리고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구별이다.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방법은 사례와 함께 잘 익혀 두어야 하며,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물론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까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언(用言)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 형용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다양한 의미와 결합하는 활용을 한다.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나눈다.

### [ 어 ] 동사와 형용사

#### 1. 동사(動詞) :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

자동사	움직임이 그 주어에만 관련되는 동사 예) 뛰다, 걷다, 가다, 놀다, 살다
타동사	움직임이 주어 이외에 목적어에까지 미치는 동사 예) 잡다, 누르다, 태우다

#### 2. 형용사(形容詞) :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

성상 형용사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예) 고요하다, 달다, 예쁘다, 향기롭다
지시 형용사	사물의 성질, 시간, 수량 따위가 어떠하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나타내는 형용사 예)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어떠하다, 아무러하다

#### ·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기준	동사	형용사
현재 시제 '-는다/ -니다' 결합 여부	(○) 매일 빵을 먹는다.	(×) *매일 너는 예쁘다.
관형사형 어미 '-는' 결합 여부	(○) 빵을 먹는 여자	(×) *예쁜는 여자
명령형, 청유형 어미와 결합 여부	(○) 빵을 먹어라. 빵을 먹자.	(×) *너는 예뻐라. 너는 예쁘자.
목적, 의도의 어미 '-러, -려' 결합 여부	(○) 빵을 먹으러 간다. 지금 빵을 먹으러 한다.	(×) *예쁘러 간다. 지금 예쁘려 한다.
'-고 있다' 결합 여부	(○) 빵을 먹고 있다.	(×) *너는 예쁘고 있다.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박문각 공무원

## 바른 시작이 곧 합격이다!

# 7급 종합반 **대개강!**

**개강일 9월 6일 월** \*순차개강

공공합격을 위한 전략형 학습이 가능해진다!

7급 제도에 맞춰 한번에 준비한다  
PSAT와 전문과목을 합격할 때까지 하나로!

노량진 박문각 최고의 7급 강사진 구성

신림동 5급 공채 1타 교수 신규 입성!



입학상담 | 노량진로 146 이데아빌딩 1층

**N** | 박문각 공무원

노량진학원 02)815-7819, 3280-9990 | 온라인 02)3489-9500

바로 듣고, 풀고, 질문

# 박문각 ▶



▶ (10) 00:00 ————— 2022 공무원 합격, 박문각

박문각 넷클래스



www.pmg.co.kr



# 하는 라이브 실전 특강

# NET class



NET 클래스로 완성됩니다!

1:00:00



문의 02-6466-7366



## 『2022년 9급 시험대비』 법학의 기초 및 소송구조 특강(1)

| 김정일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 제1장 법학의 기초

#### 제1절 법의 개념

법은 “인간의 공동생활(사회생활)에 있어서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법의 가장 전형적인 성격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규범인 점이다. 법은 이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물리적 강제력을 발동함으로써 스스로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예컨대 형법이라는 법에 의해 금지된 살인이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를 통해 국가기관인 법원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이상이라는 형벌을 부과하여 강제하고, 민법이라는 법에 규정된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갚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 및 민사집행절차를 통해 국가기관인 집행관 및 집행법원이 그 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하여 강제한다). 이것이 법의 본질적 요소이자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예컨대 우리나라에는 윤리규범으로 ‘어른들에게 반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있다. 그런데 어떤 어린이가 위 윤리규범을 위반하여 어른들에게 반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가권력(경찰 등)이 그 아이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처벌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윤리규범은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로지 법이라는 규범을 위반하여야만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력이 행사될 수 있다)

#### 제2절 법의 분류

I. 들어가며  
법은 그 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지고, 그 내용에 따라 조직법, 행위법, 절차법(구제법)으로 나누어지고, 대륙법계열의 분류로서 공법, 사법으로 나누어진다.

#### II. 형식에 따른 분류 - 성문법과 불문법

1. 성문법 - 헌법, 법률, 국제법규, 명령과 규칙, 조례와 규칙
2. 불문법 - 관습법, 조리

#### III. 내용에 따른 분류 - 조직법과 행위법과 절차법(구제법)

조직법과 행위법과 절차법의 구별은 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 1. 조직법

조직법은 법인의 기관구성 및 기관의 직무범위, 즉 권한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예컨대, 정부조직법은 조직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법인의 기관구성 및 그 직무범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후술하지만 권리와 의무는 오로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사람에는 일반적인 사람인 자연인과 법에 의해 인격이 인정된 법인(예컨대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다. 자연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관인 입이나 손 등 기관을 통해 행위를 한다. 그러나 법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에 조직법은 법인의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에게 일정 범위에서 법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무범위(권한)을 부여한다. 법인이 사람이지만 기관은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기관은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없다. 기관이 조직법에서 부여받은 권한 범위내에서 행위를 하면 그에 따른 권리의무는 법인에게 귀속된다. 물론 기관이 권한범위를 벗어나서 행위를 하면 그에 따른 권리의무는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예컨대 조직법상 계엄선포 권한은 대한민국이라는 법인의 기관인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데 권한없는 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엄선포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엄선포를 한 것으로 보지 않아 계엄선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예컨대 주식회사 삼성물산이라는 법인을 대표해서 계약체결할

권한은 대표이사라는 기관에게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 삼성물산 대표이사 이건희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주식회사 삼성물산에게 귀속된다. 대표이사 이건희는 주식회사 삼성물산의 기관으로서 권리의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시 대표이사 이건희가 아니라 자연인 이건희를 매수인 명의로 한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자연인 이건희에게 귀속된다.

#### 2. 행위법

행위법은 사람과 사람간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예컨대 형법은 국가라는 법인과 국민이라는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형벌권이라는 권리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이므로 행위법이고, 민법이나 상법은 대등한 사인 상호간의 권리의무(예컨대 매매대금청구권, 소유권 등)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이므로 행위법이고, 식품위생법은 국가라는 법인과 국민이라는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영업정지나 영업허가취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이므로 행위법이다.

\* 형법상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 구류, 몰수 총 9가지가 있다. 이러한 형벌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기관은 검사가 기소(공소제기, 형사소송제기)하여 형사법원에 의해서만 부과 가능하다. 위와같은 형벌을 부과하면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벌금 10만원이 과태료 1억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 3. 절차법(구제법)

절차법은 사람과 사람간의 권리의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민법, 형법, 상법 등은 행위법이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 각종 소송법은 절차법이다. 예컨대 “돈을 빌린 사람은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한 민법규정은 행위법이고, 돈을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예컨대 행위법인 민법(사법)에 의해 형성된 대등한 사인 상호간의 권리의무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판결을 내려 다툼을 해결한다(이때 법원은 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민사소송법이 정한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리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면 각하판결을 내리고 소송요건을 갖추었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를 심리하여 원고의 주장이 타당치 못하면 기각판결을 내린다. 예컨대 갑이 을을 상대로 100만원지급청구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한 경우 우선 법원은 당해 소송이 소송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소송요건을 충족하면 본안으로 넘어가 원고인 갑이 을에게 100만원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행위법인 민법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검토하여 인정되면 인용판결, 즉 “을은 갑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판결을 내린다).

또 행위법인 형법에 의해 형성된 국가와 국민간의 형벌권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 국가기관인 검사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사소송을 제기(공소제기, 기소)하고 그러한 형사소송을 제기 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을 내려 해결한다(이때 법원은 국민인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여 국가에게 형벌권이 존재하면 유죄판결로서 형벌을 부과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가에게 형벌권이 없는 바 무죄판결을 내린다).

마지막으로 행위법인 행정법(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등)에 의해 형성된 국가 등 행정주체와 국민(행정객체)간의 공법작용\*\*에 대한 권리의무다툼이 생긴 경우 국민이 행정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러한 행정소송을 제기

받은 법원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을 내려 해결한다(이때 법원은 국민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리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면 각하판결을 내리고 소송요건을 갖추었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를 심리하여 원고의 주장이 옳다면 원고소판결, 즉 인용판결을 내리고 원고의 주장이 타당치 못하면 기각판결을 내린다. 예컨대 갑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한 경우 우선법원은 당해 소송이 소송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소송요건을 충족하면 본안으로 넘어가 원고인 갑의 주장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한지를 판단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면 인용판결,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판결을 내린다).

- \* 예컨대 갑은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 \*\* 보통 소를 제기한 자를 원고라 하고 소를 제기받은 자를 피고라 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공소제기)을 제기한 자를 검사라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인이라 한다.
- \*\*\* 공법영역에서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이라는 공법에 근거한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이 그 예이다.

#### IV. 공법(公法), 사법(私法)

우선 공법과 사법을 분류하는 것은 대륙법계열의 특징으로 영미법계열에서는 구별하지 않는다.

공법은 우월한 국가 등과 열등한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고, 사법은 대등한 사인(국민과 국민)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게 된 이유는 같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도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인 국가 등과 국민과의 관계는 불평등관계(국가라는 사람이 국민에 비해 우월적 지위)이나 사법이 적용되는 관계인 사인상호간의 관계는 대등관계이기 때문이다. 즉, 공법은 우월한 국가가 국가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여 국민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사법영역은 대등한 사인상호간의 사적자치와 이해조절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법에 적용되는 법원칙과 사법에 적용되는 법원칙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양자를 구별할 실익은 첫째, 특정한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규 또는 법원리가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먼저 문제되는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를 명백히 함으로써 공법과 사법 중 어떤 법 원리를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예컨대 국가와 국민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 평등원칙위반인 경우, 만약 위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면 무효가 되나, 사법상 계약이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평등원칙은 공법으로서 공법관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둘째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은 민사사건과는 달리 헌법소송 또는 행정소송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나 사법관계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사건으로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 셋째 공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법상의 무위반이나 불이행과 달리 직접 행정청이 대집행·강제징수 등 자력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공법은 형법(국가와 국민간의 형벌권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 행정법(협의의 공법, 국가 등 행정주체와 국민 등 행정객체간의 형벌을 제외한 나머지 공법작용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 헌법(그러나 사실 헌법은 행정법의 한 형태도 포함된다), 그리고 각종 소송법 등이 있고, 사법의 예로는 민법, 상법 등이 있다. 그런데 행정법이라는 학문에서는 행정법과 공법은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 예컨대 민법이라는 사법에 의한 철거계약을 체결하여 상대방에게 철거의무라는 사법상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상대방이 철거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권리자는 자기가 직접 철거를 할 수는 없고 법원에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철거소송(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철거판결(이행판결)을 받은 후 그러한 이행판결에 근거하여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강제철거를 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건축법이라는 공법에 의해 국민에게 철거명령을 내려 국민에게 철거의무가 발생하였는데 국민의 철거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국가는 소송제기 없이 바로 강제철거를 할 수 있다.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박문각 공무원

## 박문각 공무원 9급

난 네가 합격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극강의 외인구단팀

# 일반행정직 전담



국어 천지현

영어 이영신

한국사 남택범

행정학 최욱진

행정법 김정일

### 일반행정 극강의 외인구단팀 종합반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b>오전</b> (10:00~13:00)	국어(천지현)	국어(천지현)		한국사(남택범)		한국사(남택범)
<b>오후</b> (14:00~17:00)	행정법(김정일)	영어(이영신)	행정법(김정일)	행정학(최욱진)	행정학(최욱진)	영어(이영신)



# 『2022년 9급 시험대비』 행정학 입문 Story telling(1)

| 이명훈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 ※ 행정학이란?



## ※ 행정의 의의

### 1. 광의의 행정

: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인간 노력의 한 형태

### 2. 협의의 행정

: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관료제의 활동

### 3. 현대적 의미의 행정

: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문제의 해결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 활동 및 상호작용

## ※ 행정학적 행정개념

### 1. 행정관리설(1880년대)

- ① 성립 배경 : 엽관주의 폐해 극복 및 실적주의 확립
- ② 정치와 행정 : 정치행정이원론
- ③ 행정과 경영 : 공사행정이원론
- ④ 행정의 개념 : 행정이란 능률적 집행
- ⑤ 대표학자 : 윌슨(W. Wilson)

### 2. 통치기능설(1930년대)

- ① 성립 배경 : 경제대공황 등
- ② 정치와 행정 : 정치행정일원론
- ③ 행정과 경영 : 공사행정이원론
- ④ 행정의 개념 : 행정이란 정책형성
- ⑤ 대표학자 : 애플비(Appleby)

### 3. 행정행태설(1940년대)

- ① 성립 배경 : 행정학 연구의 과학화
- ② 정치와 행정 : 정치행정새이원론
- ③ 행정과 경영 : 공사행정새이원론
- ④ 행정의 개념 : 행정이란 사실중심의 집단적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
- ⑤ 대표학자 : 사이먼(Simon)

### 4. 발전기능설(1950년대)

- ① 성립 배경 : 저개발국가의 압축성장
- ② 정치와 행정 : 정치행정새이원론
- ③ 행정과 경영 : 공사행정새이원론
- ④ 행정의 개념 : 행정이란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
- ⑤ 대표학자 : 에스먼(Esman), 와이드너(Weidner)

### 5. 신행정론 - 정책화기능설(1960년대)

- ① 성립 배경 : 급박한 사회문제의 해결
- ② 정치와 행정 : 정치행정새이원론
- ③ 행정과 경영 : 공사행정새이원론
- ④ 행정의 개념 : 행정이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
- ⑤ 대표학자 : 이스턴(D. Easton), 왈도(Waldo)

### 6. 신공공관리론(1980년대)

- ① 성립 배경 : 정부실패
- ② 정치와 행정 : 정치행정이원론적 시각
- ③ 행정과 경영 : 공사행정일원론적 시각
- ④ 행정의 개념 : 행정이란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에 입각한 공공관리
- ⑤ 대표학자 : 오스본과 게블러(Osborne & Gaebler)

### 7. 뉴거버넌스론(1990년대)

- ① 성립 배경 :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우려
- ② 정치와 행정 : 정치행정일원론적 시각
- ③ 행정과 경영 : 공사행정일원론적 시각
- ④ 행정의 개념 : 행정이란 국가·시장·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한 공공문제의 해결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제반활동
- ⑤ 대표학자 : 피터스(Peters), 로즈(Rhodes)

## [1] 행정학의 기초

### 제1절 행정의 개념

#### ※ 행정개념의 일반적 고찰

##### 1. 행정개념의 다양성

행정 그 성격의 불분명성과 그 범위의 다차원성으로 인하여 단일의 행정개념을 도출하기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개념은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광의의 행정개념'과 '협의의 행정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행정개념'이 중시되고 있다.

##### 2. 광의의 행정개념과 협의의 행정개념

(1) 광의의 행정개념(넓은 의미의 행정개념)  
조직 관리에 초점을 둔 행정개념으로 행정을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인간 노력의 한 형태"로 정의한다. 이 행정개념은 합리적인 조직 관리와 인간 협동의 측면에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기업체, 민간단체 등을 포함한 모든 조직 활동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적 목적을 추구하는 공(公)행정과 사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私)행정 모두를 포함한다.

##### (2) 협의의 행정개념(좁은 의미의 행정개념)

정부 관료제의 활동에 초점을 둔 행정개념으로 행정을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관료제의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 개념은 목적은 '공익'에, 주체와 활동은 '정부관료제(행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활동'에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공적 목적을 추구하는 공(公)행정만을 의미한다.

##### 3. 현대적 의미의 행정개념(거버넌스로서의 행정개념)

###### (1) 의의

① 현대적 의미의 행정은 공공문제의 해결과 공공서비스 생산·분배에 있어서 다양한공·사조직들의 연결 네트워크를 강조하는데 이를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이라고 한다.

②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은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공

공문제의 해결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 활동 및 상호작용(국가·시장·시민사회의 연결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으로 정의된다.

###### (2) 특징

- ① 공공문제 해결을 통한 공익 지향: 행정은 국방, 치안, 교육 등 공공문제에 대한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국민의 삶의 질(공익)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② 공공서비스의 생산·분배: 행정은 정책의 형성 및 집행, 행정기관의 내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생산·분배하는 활동을 한다.
- ③ 상호작용: 행정은 공공서비스의 생산·분배나 공공문제 해결을 정부가 독점하지 않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문(기업 및 NGO)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행한다.
- ④ 정치과정과 연계: 행정은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정치과정과 연계되어 있다.

## ※ 행정개념의 학문적 고찰

### 1. 행정개념의 학문적 흐름

행정개념은 두 가지의 다른 연원과 지적 전통을 배경으로 형성·발전하였다. 하나는 유럽에서 발달한 '행정법학적 행정개념'이다.

이 개념은 근대입법국가와 함께 등장하였으며,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입법·사법과 대립되는 관점에서 성립·발전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발달한 '행정학적 행정개념'이다.

이 개념은 행정국가의 대두와 함께 1887년 발간된 윌슨(W. Wilson)의 행정의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정치·경영과의 관계에서 행정이 수행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성립·발전하였다.

### 2. 행정법학적 행정개념

#### (1) 의의

행정법학적 행정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개념'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개념'으로 구분된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개념'은 입법·사법·행정의 성질을 기준으로 행정개념을 파악하는데, 행정의 성질이 입법·사법의 성질과 구별 가능하다고 보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긍정설'과 '구별부정설'로 구분된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개념'은 행정부의 제도상(법제상) 권한을 기준으로 행정개념을 파악하는데, 이 개념에 의하면 행정은 실정법상 행정부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과 작용을 의미한다.

(2) 평가-현대 행정국가의 행정현상과 부적합 행정법학적 행정개념은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엄격한 권력분립을 전제로 행정을 단순한 법령 구체화 수단 또는 관리 및 집행 작용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고도의 정책결정기능을 수행하는 오늘날 현대행정국가의 행정현상과 부합하지 못한다.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박문각 공무원

## 박문각 공무원 9급

단기합격 드림팀, 1타 부심 다이아몬드-리마스터

다이아몬드팀

# 일반행정직 전담



일반행정 다이아몬드팀 종합반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09:00~13:00)	영어(헤더진)	영어(헤더진)_2h 국어(전선혜)_2h	국어(전선혜)	한국사(선우빈)	한국사(선우빈) _2h	행정학 (이명훈)_홀 행정법 (김태성)_짝
오후 (14:00~18:00)		행정법(김태성)			행정학(이명훈)	



# 「경찰공무원(순경) 시험대비」 경찰학개론 모의고사 및 해설(2)

| 한상기 교수 | 박문각남부경찰학원

### 06.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에 대한 일반적 수권 조항' 인정논란에 대한 설명 중 긍정설을 모두 고른 것은?

- ㉠ 입법기관이 미리 경찰권의 발동사태를 상정해서 모든 발동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
- ㉡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우리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독일에서와 같이 "경찰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 개별적 수권조항은 개별적 수권이 없는 때에 한하여 2차적·보충적으로 적용이 된다.
-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일반적 수권조항이 있다고 보는 견해는 일반조항으로 인한 경찰권의 남용 가능성은 조리상의 한계 등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06. [정답] ② ♣ 난이도 상

【해설】 경찰작용법

- ㉠ 긍정설 : 입법기관이 미리 경찰권의 발동사태를 상정해서 모든 발동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 <16.2채용>
- ㉡ 부정설 :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부정설 : 우리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독일에서와 같이 "경찰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 긍정설 : 개별적 수권조항은 개별적 수권이 없는 때에 한하여 2차적·보충적으로 적용이 된다. <16.2채용>
- ㉤ 긍정설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일반적 수권조항이 있다고 보는 견해는 일반조항으로 인한 경찰권의 남용 가능성은 조리상의 한계 등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한다. <16.2채용>

### 07.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의 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벌금수배자 출현,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 경고, 억류·피난,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②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해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경고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③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한다.
- ④ 경찰관은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태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07. [정답] ④ ♣ 난이도 중

【해설】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① (X) -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 경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 벌금수배자 출현(X)> (제5조) <98·99·13승진>

- ② (X) -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08·16승진·11.1채용>
- ③ (X) -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금지하여야(X)> (제5조 제2항) <13·14.2·15.1채용>
- ④ (O)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 <12·13·16승진>

### 08.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태성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사용기록보관 및 보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 살수차, 분사기나 최루탄 또는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사용장소·사용대상·현장책임자·종류·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위태성 장비 규정'상 위태성 경찰장비(기타장비의 경우에는 살수차만 해당)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상급 감독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위태성 장비 규정'상 무기 사용보고를 받은 직근상급 감독자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형법 외에 별도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직권남용에 벌칙규정이 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08. [정답] ③ ♣ 난이도 상

【해설】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 (X) - 살수차, 분사기나 최루탄 또는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사용장소·사용대상·현장책임자·종류·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경찰장구(X)> (제11조) <15경간·16.2순경>
- ㉡ (O) - 위태성 장비규정 제20조 제1항.
- ㉢ (O) - 위태성 장비규정 제20조 제2항.
- ㉣ (X)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직권남용에 벌칙규정이 없다.(X)> (제12조) <03·06·09·13·17승진·07·15.3채용>

### 09.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의 어느 하나의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사유가 있는 경우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 ㉡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로 청구하지 못한다.
- ㉢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은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 ㉣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09. [정답] ① ♣ 난이도 상

【해설】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 (X) -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의 어느 하나의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보상하지 않을 수(X)> (제11조의2 제1항) <19경간·20승진·17.2채용>
- ㉡ (X) -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안 날로부터 1년 발생한 날부터 3년(X)> (제11조의2) <17승진·15.1·2·3채용>
- ㉢ (O) -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19경간·20승진·15.1채용>
- ㉣ (X) -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행정안전부령으로(X)> 정한다. (경직법 제11조의2 제4항) <17승진·18.2채용>

###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구인은 당해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한다.
- ②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정보공개청구 관련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 [정답] ③ ♣ 난이도 하

【해설】 권리구제수단

- ① (X) - 청구인은 당해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서면으로 청구해야(X)> (제10조 제1항) <13·17·19·20승진>
- ② (X)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고도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X), ▶ 직근상급기관에(X), ▶ 20일 경과..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X), ▶ 20일 경과...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X)> (제18조) <04승진·11·15경간·10.2·15.3·16.1채용>
- ③ (O)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21조. <12.2채용·13승진>
- ④ (X) -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5일 이내(X)> <10.2·12.2채용·13승진>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박문각 경찰

2022 경찰 합격에 필요한 모든 것!

# 스파르타 기숙연계반

## 9월 6일 개강

### 현강패스

합격할 때 까지  
실강/인강/모의고사 전과목 무한 수강!



[ 21년 9월 ~22년 2월 ]  
**2,850,000원**

### 경찰 스파르타

합격할 때 까지  
프리미엄 자습실 무한 이용권!



[ 21년 9월 ~22년 2월 ]  
**3,450,000원**

### 기숙연계 스파르타

1일 3끼 식사 / 1인 1실 숙소  
그룹 P.T체력학원까지 한번에 해결!



[ 21년 9월 ~22년 2월 ]  
**7,290,000원**



# 「경찰공무원(순경) 시험대비」 형법 모의고사 및 해설(6)

| 오상훈 교수 | 박문각남부경찰학원

### 18.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이고,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행위는 계속법의 성질을 가진다.
- ②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우리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에 의한 일반교통방해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18. [정답] ③ [해설]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난이도 중

- ① O, ② O :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8.5.11. 2017도9146)
- ③ X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8.1.24. 2017도11408).
- ④ O :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 ①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실범 처벌규정 : “화수가전파열 교장사상”

### 19.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에 해당하는 허위의 기재’는 사실에 관한 것이건 판단에 관한 것이건 불문한다.
- ② 대리권·대표권이 있는 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단순히 권한을 남용하는 문서를 작성함에 불과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작성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행위는 형법 제232조의 2에서 정한 사전자기기록의 ‘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19. [정답] ③ [해설] 문서에 관한 죄 ♣ 난이도 중

- ① O :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 대판 2017. 11.9. 2014도15129
- ② O :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권한을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그 대표자,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83.10.25. 83도2257). ∴ 권한남용 = 작성권한 O
- ③ X :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기록 ‘위작’의 의미>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공전자기록등위작죄)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 위 법리는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기록등위작죄에서 행위의 태양으로 규정한 ‘위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20.8.27,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 ④ O :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대판 2000.9.5., 2000도2855).

### 20.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제137조)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③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이상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 소환장 등을 허위 주소로 송달케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0. [정답] ④ [해설]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난이도 중

- ① O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1.5.10. 91도453).
- ② O : 대판 2003.2.11, 2002도4293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 ③ O :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큰 소리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곳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밤늦은 시각에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한참 동안 소란을 피운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행위임은 분명하고,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판 2013.12.26, 2013도11050).
- ④ X :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10.11, 96도312). ∴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그 주소로 재판관계 서류를 송달하게 한 행위는 송달업무의 적정성을 침해하기는 하였지만, 이로써 송달업무 또는 재판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 기수 X, 미수에 불과하나, 미수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박문각 경찰

과목개편 완벽대비

# 2022

All Pass



경찰 올패스 보기

# 평생 올패스

2022 과목개편에 대비한 업그레이드 된 올패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합격 시  
수강료 전액 환급!



수강기간  
2개월 연장권 제공



최대 10만원  
교재 적립금 제공



경찰 전과목  
무제한 수강



월간 온라인  
합격예측 모의고사



밀착관리 프로그램  
박문각 캠퍼스리디

노량진학원 02)3280-1112 | 온라인 02)3489-9500

# 박문각 감정평가사

## 박문각 감정평가사는 아무런 근거없이 1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4년 연속  
전체·실무 수석  
합격자 배출

2017 ~ 2020 서울법학원  
온·오프 수강생 기준

최종합격 시기  
총 167건  
업계최다

~ 2020.1.10  
20줄 이상 합격시기 등록수 기준

감정평가사  
브랜드 검색 수  
1위

2019.1 ~ 2019.12  
네이버 DataLab 브랜드 검색 기준

온·오프  
수강생 수  
1위

감정평가사 2차 단과·GS스터디  
온·오프 수강생 기준

# 2022 박문각 감정평가사 올패스

1차 올패스 | 2차 올패스 | 동차 올패스



2022년 최종 합격 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재 구매 시 최대  
20만 포인트 지급



업계 유일  
온라인 검색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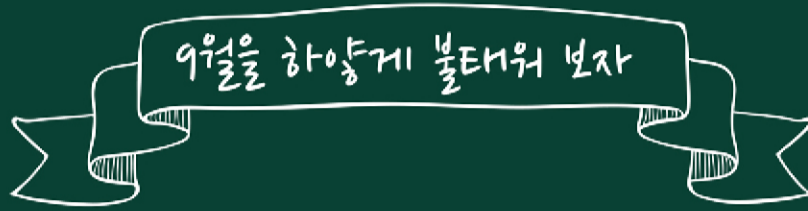


다양한 올패스  
혜택사항 제공



서울법학원 02)887-9161~3 | 온라인 02)3489-9500

# 박문각 편입



## 박문각편입학원



# 9월 개강

### EVENT 1

첫달 수강시  
**50%할인!**

### EVENT 2

 2과목 수강시  
과목별 할인!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성적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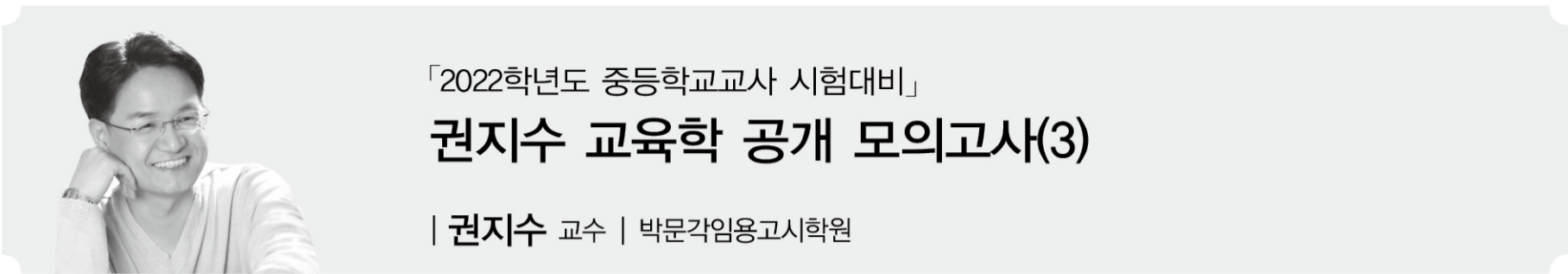
철저한  
생활관리



출결관리

강남 상담 02)508-4551

종로 상담 02)6182-9621



「2022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시험대비」  
**권지수 교육학 공개 모의고사(3)**

| 권지수 교수 | 박문각임용고시학원

**【 모의고사 채점 기준표 】**

**1. 형식 점수 [5점]**

- (1) 논술의 내용과 주제와의 연계성: 2점
- (2)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 1점
- (3) 표현의 적절성: 2점

**2. 내용 점수 [15점]**

(1) 1번 논점: 교육과정 운영

세부 논점(배점)	중심 내용 + 설명/논증/(제시문 분석·적용)		
① 교육과정의 명칭 [1점]	교육과정의 '명칭'	영교육과정 ⇨ 명칭만 쓰면 득점	1점
② 부정적 영향 2가지 [2점]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2가지	㉠ 학습기회 박탈 ㉡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 형성 등	각 1점 (2점)
③ 교육내용 재구성 1가지 [1점]	교육내용 재구성 방안 1가지	주제 중심으로 통합형 교육과정 구성, 교육과정상의 필수요소를 중심으로 내용 엄선 등 1가지 제시 [단, 교육 내용 재구성 측면에서 제시]	1점

(2) 2번 논점: 원격교육

세부 논점(배점)	중심 내용 + 설명/논증/(제시문 분석·적용)		
① 매체 선정 기준 1가지 [1점]	베이츠(Bates) ACTIONS 모형- 매체 선정기준 1가지	접근성(Access)-매체가 학습자에게 얼마나 접근성이 좋은가	1점
② 원격교육의 장점 2가지 [2점]	원격교육의 장점 2가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내용을 학습,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교육 가능,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 통한 학습 가능, 각 지역에 있는 학습자원 공유 등 2가지 제시	각 1점 (2점)
③ 문제점 보완 방안 1가지 [1점]	'온라인상에서'의 보완 방안 1가지	온라인상에 게시판, 채팅창 등을 활용하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함	1점

(3) 3번 논점: 학력격차

세부 논점(배점)	중심 내용 + 설명/논증/(제시문 분석·적용)		
① 발생 요인 2가지 [2점]	㉠ 인적 자본 ㉡ 사회적 자본	㉠ 명칭만 써도 득점 인정(인적자본, 인간자본) ㉡ 명칭만 써도 득점 인정(사회적 자본, 사회자본)	각 1점 (2점)
② 대처 방안 2가지 [2점]	㉠ 인적 자본 ㉡ 사회적 자본	㉠ 학교 교육과정 안내, 구체적인 교과 지도방안 안내, 학습 보조 사이트 안내, 학생의 학습 도우미 제공,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습지원역량 제고 등 1가지 제시 ㉡ 자녀에 관한 교육정보 공유, 교육에 대한 노하우(know-how) 제공, 자녀에 대해 부모의 관심과 기대수준 제고, 학부모회 등을 통한 정보교류 안내 등 1가지 제시	각 1점 (2점)

(4) 4번 논점: 참여적 의사결정 모형

세부 논점(배점)	중심 내용 + 설명/논증/(제시문 분석·적용)		
① 상황 [1점]	상황	전문가 상황, 전문가 한계 영역 상황 등 명칭만 쓰면 득점	1점
② 참여형태 [1점]	참여형태	가끔 그리고 제한적으로	1점
③ 학교장 역할 [1점]	학교장 역할	간청자	1점

**[ 논점별 키워드 정리 ]**

**1 영 교육과정**

1. 개념 : 영 교육과정은 배울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교육과정이나 수업에서 배제된 교육내용(교육과정) ⇨ 제3의 교육과정, 배제된 교육과정(excluded curriculum)
2. 의미 ① 공식적 교육과정(공적인 문서에 들어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학습하지 못한 교육내용)  
② 공식적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학습할 기회가 없었던 교육내용
3. 특징 ① 교육과정은 선택과 배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영 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의 필연적 부산물  
② 영 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이나 수업에서 배제되므로 학생의 학습기회를 박탈함  
③ 교육과정 사회학의 접근방법 ⇨ 교육과정은 특정 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산물  
④ 영 교육과정은 잠재적 교육과정의 특정한 형태로 간주되기도 함(Apple)

< 다음호에 계속 ... >

합격지수 100, 탁월한 교육학논술 전문가

**교육학논술 권지수**



**[ 직장전용 ] [ 월화반 ] 9~11월 종합 모의고사반(10주) [21년]**

개강일 : 2021/09/06  
 시 간 : [월] 09:00~13:00 [1~10주] / [화] 09:00~13:00 [1~8주]

**[ 직장전용 ] [ 일요반 ] 9~11월 종합 모의고사반(10주) [21년]**

개강일 : 2021/09/05  
 시 간 : [일] 09:00~18:00 [9~10주: 13시까지]

**[ 라이브전용 ] [ 월화반 ] 9~11월 종합 모의고사반(10주) [21년]**

개강일 : 2021/09/06  
 시 간 : [월] 09:00~13:00 [1~10주] / [화] 09:00~13:00 [1~8주]

**[ 라이브전용 ] [ 일요반 ] 9~11월 종합 모의고사반(10주)**

개강일 : 2021/09/05  
 시 간 : [일] 09:00~18:00

**박문각 공무원 노량진학원 02)815-7819, 3280-9990 | 온라인 02)3489-9500**

# 박문각 임용

2022학년도 교원 임용 시험 대비



# 김은경 과학교육론

과교론이 자신만만해 진다.

## [9~10월] 과학교육론

## All Pass 실전 모의고사 적중반(4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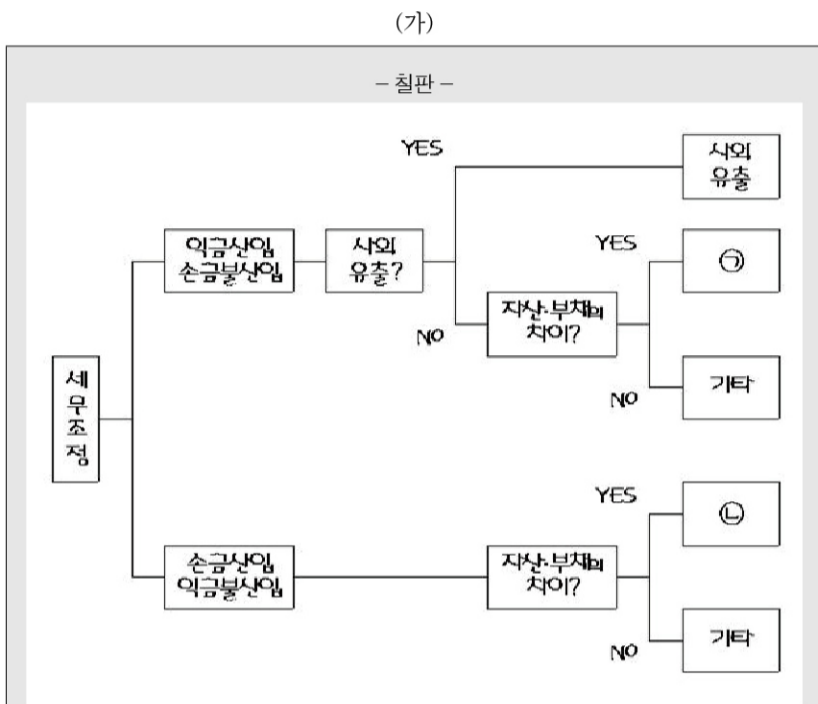
강의시간	수, 14:00~18:30
개강-종강일	9/15(수) ~ 10/13(수) * 9/22 추석연휴 휴강
대상	중등 과학과(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전공) 수험생
강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 교육론 실전 모의고사 4회 + 해설지 + 해설 강의</li> <li>▶ 각 단원별 핵심내용 이론정리</li> <li>▶ 본인 위치 확인을 위한 회차별 성적비교표 게시 (카페 게시)</li> <li>▶ 수강생 답안중 우수답안 선별 모범답안 게시 (카페 게시)</li> </ul>
진행 시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 : 14:00~15:20</li> <li>▶ 해설 및 핵심내용 정리 15:30~18:30</li> </ul>

※ 직강 수강생 전원 전화차 참석 채점 제공! → 종강후 과학전공 풀패키지 통합 모의고사로 이어집니다.

「2022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시험대비」  
**상업 실전모의고사 및 해설(10)**

| 전민식 교수 | 박문각임용고시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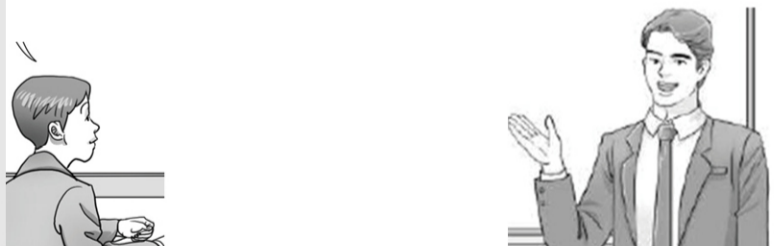
09. 다음은 (가)는 박문각 상업고등학교의 '세무 일반' 과목 수업 장면 및 학생과 교사 간 대화이고, (나)는 수업과정에서 교수·학습의 진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형성평가 문제이다. (가)와 (나)를 이용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4점]



상황	세무조정	소득처분
기업회계 순자산 < 법인세법 순자산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기업회계 순자산 > 법인세법 순자산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일시적 차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세무기준액간의 차이를 말합니다.  
 (㉠)할 일시적 차이는 미래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므로 납부할 세액을 증가시켜 현금유출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할 일시적 차이는 부채의 성격입니다. ㉡ 소득처분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일시적 차이의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또한 ㉠의 소득처분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나)

20×1년 1월 1일에 영업을 시작한 (주)박문각은 장기건설계약으로 인한 이익을 재무보고 목적으로는 공산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지만, 법인세법에 따르면 공산완성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각 기준에서의 이익은 다음과 같다.

연도	공산진행기준	공산완성기준
20×1년	300,000	-
20×2년	600,000	900,000

<작성 방법>

- 자료에 제시된 내용에 한정할 것.
- (주)박문각의 결산일은 12월 말일이다.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각각 순서대로 제시할 것.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각각 순서대로 제시할 것.
- 괄호 안의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각각 순서대로 제시할 것.
- 20×1년부터 20×2년까지의 법인세율은 30%이고, 20×2년 중의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해 20×3년과 그 이후의 연도에 대한 법인세율은 25%이다. 20×2년 재무상태표에 (주)박문각이 보고해야 할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의 잔액은 얼마인지 제시할 것(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표기하고 그 금액을 제시할 것).
- 20×1년 말 (주)박문각의 법인세 관련 회계처리를 제시할 것.
- 20×2년 말 (주)박문각의 법인세 관련 회계처리를 제시할 것.

(정답 및 해설)

㉠ 유보      ㉡ △유보      ㉢ 가산

20×2년 말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 잔액은 없다.

20×1년 말 > (차) 법인세비용 90,000 (대) 이연법인세부채 90,000

20×2년 말 > (차) 법인세비용 180,000 (대) 당기법인세부채 270,000  
 이연법인세부채 90,000

★★ [2단계 세무회계 법인세 P16~19 참조]★★

❖ 법인세 기간배분 회계처리 =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2단계 세무회계 P19 참조]

기업회계 순자산 > 법인세법 순자산

- 기업회계 순자산보다 법인세법 순자산이 더 작은 상황이라면
- 과세소득이 회계이익보다 작으므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익금불산입(△유보) 필요
- 세무조정 : - 손금산입·익금불산입(△유보)

$$\text{회계이익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text{손금산입·익금불산입} = \text{과세소득 (각 사업연도 득금액)}$$

① 세무조정 : - 손금산입·익금불산입(△유보) ← (미래 과세소득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

→ ② 회계이익 - △유보 = 과세소득

→ ③ 과세소득이 회계이익보다 △유보만큼 감소함

→ ④ 당해 회계연도에 법인세부담액(당기법인세부채)이 감소함

→ ⑤ 미래 회계연도에는 반대로 과세소득이 증가함 ← (미래 과세소득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

→ ⑥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의한 법인세 효과를 이연법인세부채 계정과목으로 부채로 인식

☞ [2단계 세무회계 P17 참조]

영구적 차이	• 일시적 차이와는 달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 차이가 일정기간이 지나도 조정되지 않는 차이를 말함. → 법인세 기간배분(이연법인세 회계)의 대상이 되지 않음.
일시적 차이	• 일시적 차이란 수익·비용 인식시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간의 견해차이로 발생함. • 재무상태표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세무기준액간의 차이를 말함. • 특정 회계연도에 발생한 일시적 차이는 미래의 회계연도에 반드시 반대의 영향을 가져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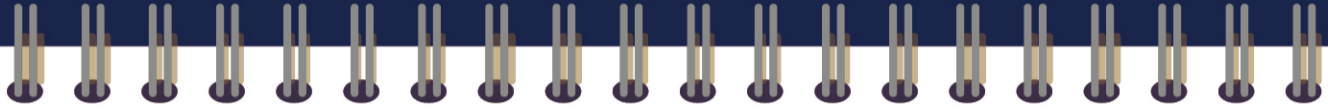
- ① 차감할 일시적 차이      매래의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일시적 차이
- ② 가산할 일시적 차이      미래의 과세소득에 가산되는 일시적 차이

<다음호에 계속...>

# 박문각 임용

박문각 교원 임용의 합격 기준

## [ 화학 · 물리 · 생물지구 · 과학 풀패키지 통합모의고사(4주) ]



### [10~11월] 김은경+안향선 전공화학 통합모의고사

강의 시간	강의기간	개강-종강일
금, 09:00~19:00	4주	10/29(금) ~ 11/19(금)

※ 교육학 및 유기화학은 해설강의없이 해설지만 배부됩니다.

### [10~11월] 김은경+정승현 전공물리 통합모의고사

강의 시간	강의기간	개강-종강일
금, 09:00~19:00	4주	10/29(금) ~ 11/19(금)

※ 교육학은 해설강의없이 해설지만 배부됩니다.

### [10~11월] 김은경 전공생물 통합모의고사

강의 시간	강의기간	개강-종강일
금, 09:00~15:50	4주	10/29(금) ~ 11/19(금)

※ 교육학 및 전공생물은 해설강의없이 해설지만 배부됩니다.

### [10~11월] 김은경 전공 지구과학 통합모의고사

강의 시간	강의기간	개강-종강일
금, 09:00~15:50	4주	10/29(금) ~ 11/19(금)

※ 교육학 및 전공지구과학은 해설강의없이 해설지만 배부됩니다.

# 박문각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1위 박문각

2021년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도 1위 교육부문 선정

빠르고 확실한 합격의 마지막 기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바로 올패스 파이널이 답입니다.

# 2021 올패스 파이널

2021년  
시험일까지  
무제한 수강!



20년 154문항 적중!  
온라인 전국  
모의고사 제공!



시험 직전  
총 정리  
LIVE특강 제공



박문각 공인중개사와 함께라면  
2021년 합격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온라인 수강 문의 02)3489-9500



# 박문각 공인중개사

1위 공인중개사 박문각

쉽게 공부하고 한 번에 합격!  
수험생의 합격만 생각하겠습니다.



2020 한국산업의 1등 브랜드 대상 수상

# 강남학원

9월 6일  
대개강



족집게 100선(2주) +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4주)

시간/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b>과목</b>	부동산세법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법령	민법및 민특법	부동산공시법
<b>오전반</b> 09:40~13:30	하헌진 교수 정석진 교수	김백중 교수 박성호 교수	오시훈 교수 최성진 교수	신정환 교수 고형석 교수	김정호 교수 김덕수 교수	박윤모 교수 임의섭 교수
<b>야간반</b> 18:45~22:00	이태호 교수	박성호 교수	오시훈 교수	고형석 교수	김정호 교수	주·야합반

💰 수강료: 종합 49만원, 1차 29만원, 2차 39만원    📖 교재: 출간교재 및 프린트    🖥️ 온라인: 선택한 교수님 시험일까지

강남학원 02)3476-3670 | 온라인 02)3489-9500

#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근 5년간 기출 훑어보기 - 짝수편(5)

| 편집 : 고시기획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7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 ②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역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 71.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 ②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 ③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 ④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 ⑤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 72.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입채권

- ① ㄱ                      ② ㄱ, ㄴ
- ③ ㄱ, ㄷ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73.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 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 ② 甲과 乙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과 乙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 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74. 합의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 ④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⑤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75.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乙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할 의무는 없다.
- ③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甲은 잔대금의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乙이 미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로받았다고 하여도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 ⑤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乙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 76.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 ③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

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 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77.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 ③ 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 78.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乙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⑤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 7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 ②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 ④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 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 박문각 공인중개사



## 1위 공인중개사 박문각

쉽게 공부하고 한 번에 합격!  
수험생의 합격만 생각하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도 1위

# 종로학원

9월 6일  
개강



죽집게 100선 + 전범위 동형모의고사반  
“시험 전 마지막 실전연습 합격예약 강의” 주간·야간 (6주 완성)

마감  
유의

### 한가위(추석)특강

9월 19일(일)  
이영섭  
부동산학개론  
  
9월 22일(수)  
정지웅  
공인중개사법

### 홀인원! 일요하루특강

8/22(일)  
부동산학개론  
9/5(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9/12(일)  
공인중개사법  
10/3(일)  
부동산공법

### 2022년 공인중개사 대비 미리등록 할인 이벤트

- 👉 수강료 파격 할인
  - 👉 2022년 교재 18권 제공
  - 👉 선행학습 동영상 제공
  - 👉 선착순 30명 독서대 제공
- (9월 30일까지 등록자에 한함)

80.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⑤ 甲과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81.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 ②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 ④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 ⑤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82.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 ④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 ⑤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의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83.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을 단독상속하는 경우,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ㄴ.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를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ㄷ.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丙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丙은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4.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 ②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 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85.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丙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 ② 丙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③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70. ⑤	71. ③	72. ②	73. ④	74. ③	75. ⑤
76. ③	77. ④	78. ⑤	79. ③	80. 모두정답	
81. ③	82. ③	83. ①	84. ⑤	85. ④	

# 박문각 법무사

## 박문각 법무사는 아무런 근거없이 1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7년 연속  
수석합격자  
배출

2014 ~ 2020  
박문각 법무사 온·오프 수강생 기준

수석·최연소 포함  
124명 중 88명  
합격자 배출

2020년 박문각 법무사  
온·오프 수강생 기준

합격자 총  
88명 중, 63명  
온라인 강의 수강생

박문각 법무사  
온·오프 수강생 기준

2차 온라인 침삭  
수강생  
합격률 73.9%

2019년 2차 올패스  
온라인침삭 수강회원 기준

# 2022 박문각 법무사 올패스



2022년 최종 합격 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재 구매 시 최대  
30만 포인트 지급



쿠폰/봉투모의고사 등  
혜택사항 제공

# 박문각 공인중개사

**1위** 공인중개사 **박문각** 쉽게 공부하고 한 번에 합격!  
수험생의 합격만 생각하겠습니다.

# 노량진학원

9월 23일(목) 개강

**동형 모의고사**

오전, 야간반

전범위 합격 테스트반

【 족집게 문제특강 】				
9월6일, 13일(월)	부동산학개론	국승욱 교수	김백중 교수	
9월7일, 14일(화)	공인중개사법	고종원 교수	최상준 교수	
9월8일, 15일(수)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덕수 교수	이승현 교수	
9월9일, 16일(목)	부동산공시법	박윤모 교수	강철의 교수	
9월10일, 17일(금)	부동산공법	이석규 교수	최성진 교수	이경철 교수
9월11일, 18일(토)	부동산세법	하현진 교수	정석진 교수	

【 일요 이론 총정리 특강 】			
8월15일(일)	공인중개사법	고종원 교수	최상준 교수
8월22일(일)	부동산공시법	박윤모 교수	강철의 교수
9월 5일(일)	부동산세법	하현진 교수	정석진 교수
9월12일(일)	부동산공법	이석규 교수	최성진 교수
10월 3일(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덕수 교수	이승현 교수
10월10일(일)	부동산학개론	국승욱 교수	김백중 교수

# 박문각 노무사


# 2022년 노무사 시험대비 노무사 올패스 OPEN

2022년 노무사 시험 합격은 박문각이 정답인 이유!

## 올패스만의 파격적인 수강 혜택!



2022 최종 합격 시  
수강료 전액 환급




2차 모의고사 강의  
온라인 첨삭



2022 대비 강의  
시험일까지 [무제한 수강]



선행학습을 위한  
2021 강의 제공



교재 구매 지원  
최대 20만원

## 최단기 합격을 위한 커리큘럼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차 과정	기본이론(선행)						기본이론		문제풀이		모의고사		
2차 과정			GS 0기				GS 1기		GS 2기		GS 3기		

## 검증된 노무사 전문 강사진!



종로학원 02)734-8082 | 온라인 02)3489-9500

PMG 박문각

# 합격기준 박문각 공인중개사 무료 강의제공!

박문각 공인중개사 기본서 / 문제집 / 실전모의고사  
구매시 **무료 강의 쿠폰이 제공** 됩니다.



기본이론 강의

문제풀이 강의

실전모의고사 강의

## 박문각 무료 동영상 강의 시리즈

\* 무료 쿠폰강의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공인중개사

기본이론 강의 / 문제풀이 강의 /  
실전모의고사 강의 / 교수별(25인) 필수이론

### 공무원

9급 공무원 기출해설강의(예정)  
: 과목별 최근 3~5개년간 기출문제 풀이

### 한국사능력검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강의(예정)

### 컴퓨터활용능력

컴퓨터활용능력 2급 실기  
: 최신 기출문제 유형 분석



- 구매 페이지 접속
- ▼
- 무료강의 선택
- ▼
- 수강키 입력
- ▼
- 수강 신청하기

\*과정별 수강키는 교재 구매시 또는  
박문각 제휴 스타디카페 수강 지점에서  
제공됩니다.(데스크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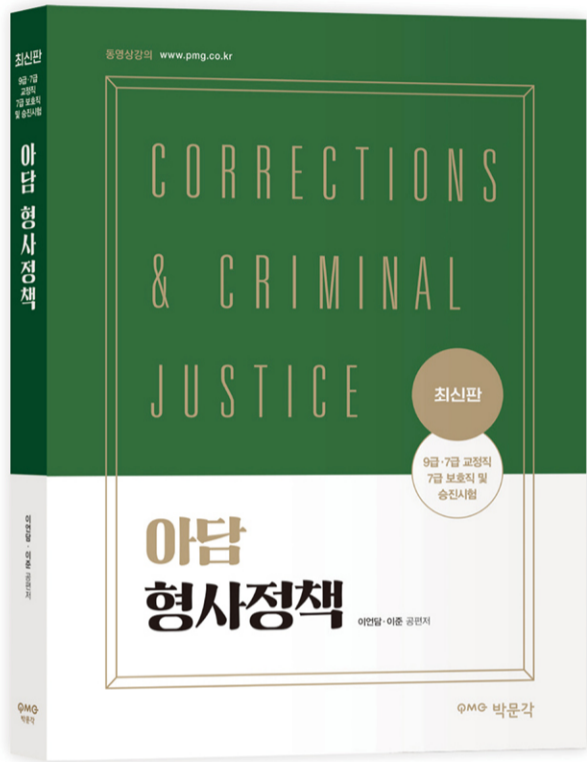
문의전화 | 02-6466-7506

합격, 박문각

BOOKs 

합격의 책

HOT



이연담·이준 공편저 / 2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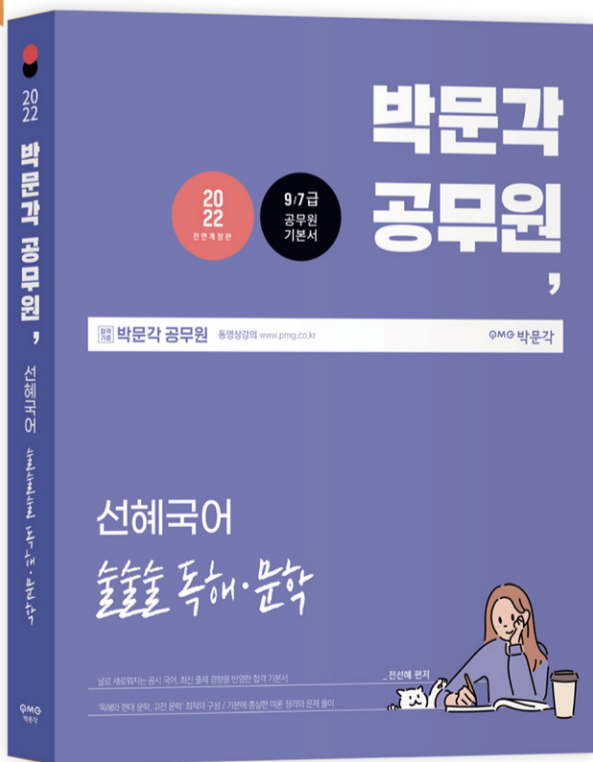
[최신판]

# 아담 형사정책

9·7급 교정직, 7급 보호직 및  
승진시험 대비 최적의 기본서

- 기본서 한 권으로 합격에 충분한 완전학습 체계 구성
- 새로운 법령, 최신 판례를 완벽하게 반영
- 상세한 기출 표기로 출제경향과 중요도 한눈에 제시
- 효율적 목차 구성과 확인학습으로 교재 활용도 극대화

GOOD



전선혜 편저 / 24,000원

2022 박문각 공무원 기본서

# 선혜국어

술술 독해·문학

날로 새로워지는 공시 국어

-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합격 기본서
- 독해와 현대문학, 고전 문학 망리한 최적의 구성
- 기본에 충실한 이론 정리와 다양한 문제 풀이